

2025학년도 동계 이화글로벌프론티어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미국 언론의 이주민 프레임 탐사를 통한
한국 언론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제시 및
다큐멘터리 제작

ReFrame

목 차

I. 서론

1. 탐사 주제 및 목표 p.1
2. 탐사 배경 p.4
3. 논의의 필요성 p.6
4. 연구 방법 p.6

II. 본론

1. 기존 연구
 - 1) 기존 논의 요약 및 정리 p.8
 - 2) 기존 연구의 한계 p.9
 - 3) 본 연구를 통한 기대 효과 p.9
 - 4)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필요성 p.10
 - 5)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기대효과 p.11
2. 국내 탐사
 - 1) 국내 탐사 과정 p.12
 - 2) 국내 선행 연구 내용 p.14
 - 3) 국내 인터뷰 내용 p.30
3. 해외 탐사
 - 1) 해외 탐사 과정 p.39
 - 2) 해외 선행 연구 내용 p.40
 - 3) 해외 심층 인터뷰 p.44
4. 탐사의 결과
 - 1)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p.68
 - 2) 대중용 카드뉴스 p.108
 - 3) 다큐멘터리 p.113

III. 결론

1. 핵심 내용 요약 p.113
2. 본 연구의 의의 p.115
3. 본 연구의 한계 p.116
4. 후속 연구 방향 p.118

IV. 참고문헌 p.118

V. 부록 p.120

I. 서론

1. 탐사 주제 및 목표

1) 탐사 주제

본 탐사의 주제는 이주민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언론의 프레이밍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맥락에 부합하는 이주민 보도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 관행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비교 사례로서 미국 언론의 이주민 프레이밍과 이를 둘러싼 논의 구조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은 오랜 이민의 역사 속에서 이주민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이지만, 본 탐사에서는 미국 언론 사례를 ‘모범적 해결책’이 아닌 비교와 검토를 위한 참고 사례로 설정하였다. 즉, 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주민 보도가 처한 정치적·사회적 맥락과 언론 내부의 논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탐사 목표

본 탐사의 목적은 한국 언론이 이주민을 어떠한 프레임으로 재현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한계를 점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여 진보/보수 성향의 주요 언론사 기사 총 60건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주민 프레이밍 양상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미국 언론 사례와 현지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주민 보도가 처한 구조적 한계와 사회적 민감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탐사 과정에서 미국 사회 전반에서 이주민 문제가 극도로 정치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터뷰 결과 이주민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언론 기구 내부에는 기본적인 보도 원칙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문제는 가이드라인의 부재라기보다, 이주민 이슈가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놓이면서 보도 원칙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있으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가이드라인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탐사는 외국 사례의 단순한 벤치마킹을 지양하고, 한국 사회의 언론 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한국형 이주민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연구 결과와 가이드라인 제작 과정을 보다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탐사의 전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함께 제작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탐사 배경

자료 조사를 위해 해외 언론 보도를 탐색하던 중, BBC 뉴스에 보도된 「'부모의 불법체류가 제 죄가 되나요' 고향 한국에서 좌절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¹⁾ 해당 기사에서는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미등록 신분이 된 이주 아동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강제 퇴거 대상이 되거나,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더라도 제도적 제약 속에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조명하고 있었다.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관심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이주민 문제를 전달하는 언론 보도의 역할과 책임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2024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민 증가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²⁾ 절대적인 이민자 수는 전통적인 이민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이주민은 향후 한국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려는 사회적 공감대 역시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한국 시민들은 이주민을 일상에서 직접 접하기보다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인식하게 된다. 즉, 미디어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이

1) 이선욱(2025.2.5), 「'부모의 불법체류가 제 죄가 되나요' 고향 한국에서 좌절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 『BBC 코리아』.

2) 안준현·김병권(2024.11.20), 「“밤길 안전하고 아파도 걱정 없어”... 한국 이민 50% 늘었다」, 『조선일보』.

3) 이지현·박상혁(2025.5.21), 「다문화 사회 초입 한국... “이민자,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머니투데이』.

미지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는 ‘불법 체류’, ‘범죄’, ‘사회적 부담’과 같은 부정적 프레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프레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보도 기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⁴⁾

본 탐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를 비교 사례로 설정하였다. 미국은 오랜 이민의 역사와 함께 이주민 보도를 둘러싼 논의가 축적된 사회이지만, 현지 탐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문제가 극도로 민감하고 정치화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언론 종사자들 역시 이민자 보도에 대해 명확한 원칙이나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관찰은 외국 사례를 단순히 적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 사회 내부의 맥락에 기반한 이주민 보도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한다.

이에 본 탐사는 미국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국 언론의 보도 관행 분석을 중심에 두고 이주민 프레임 문제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한 이주민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향후 이민자 보도를 둘러싼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설정하였다.

- 첫째, 한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프레임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는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재현하는 데 어떠한 한계를 드러내는가?
- 둘째, 한국 언론의 이주민 프레임은 진보/보수 언론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슈별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셋째, 미국 언론 사례와 현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이주민 보도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는 한국형 이주민 보도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모색하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3. 논의의 필요성

4) 임준(2018), 「한국 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 경향 연구: MBC·KBS·SBS 저녁뉴스와 YTN 뉴스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제57집 제1호, 324쪽.

기존의 한국 언론 연구는 이주민 보도에서 나타나는 프레이밍 양상을 측정·분석해 왔으나, 대부분 특정 시기나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⁵⁾ 이러한 연구는 이주민이 언론 보도에서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를 보여 주지만, 보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패턴이나 프레이밍의 반복성,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주민을 단일한 외부 집단으로 표현하거나 ‘타자화’하는 보도 경향은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다.⁶⁾ 이처럼 프레이밍이 언론 보도 전반을 조직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은, 개별 사례 분석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구조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탐사의 미국 현지 조사 결과는, 오랜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보도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압력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외국 사례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한국 언론 보도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분석한 뒤 한국형 이주민 보도 기준과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탐사는 한국 언론 보도의 이주민 프레이밍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책임 있는 이주민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사회적 의의를 지닌다.

4. 연구 방법

연구는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 국내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사 사례 분석 - 이주민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각 언론사가 보도한 방식을 비교, 분석한다. - 진보와 보수 언론사가 이민자를 재현하는 양
-------------------	-----------------------------------------------------------------------------------------------------------------------------------------------------------

5) 양명철·한혜경(2014), 「한국 미디어의 이주민 보도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41집, 533쪽.

6) 채영길(2010),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에 나타난 이주민 타자화 프레이밍의 시계열적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14권 제2호, 207쪽.

	<p>상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진영을 대표할 만한 언론사를 선정하여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분석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임 유형을 확인하는 문항들을 제작해 통계수치를 구하고 각 기사별로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분석한다. <p>*진보 : 한겨레, 경향신문, 보수 : 조선일보, 중앙일보</p>
2. 단체 및 기관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단체와의 인터뷰 - 언론기관, 언론연구소 및 이주민 지원센터, 다문화 연구소 등을 인터뷰한다. • 해외 기관과의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택된 기관들 및 실제 이민자들과 인터뷰한다.
3. 미국 언론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한 해외 기관들과의 인터뷰를 정리하여 미국 언론의 이주민 프레이밍 현황을 분석한 후,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토대를 제작한다.
4. 가이드라인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임의 유형에 따른 개선 방향성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방향성을 “보도 프레이밍0원칙”(예시) 등으로 정리한다.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 (WHO Strategic Communications Framework for Effective Communications)의 형태를 참고한다. • 예시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를 제시한 뒤, 이를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정한 버전을 함께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 교육용 가이드라인 및 대중용 카드뉴스 제작

II. 본론

1. 기존 연구

1) 기존 논의 요약 및 정리

기존 논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언론의 프레이밍(framing)이란 특정 사회 현상이나 집단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현실의 일부 측면을 선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수용자가 사안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틀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프레이밍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 해결 방식에 대한 해석 방향까지 구조화함으로써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주민 보도에서 프레이밍은 ‘불법 체류’, ‘범죄’, ‘사회적 부담’과 같은 특정 키워드와 서사를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주민을 위협적이거나 문제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 역시 언론사 성향에 따라 상이한 프레임이 형성되며, 이러한 프레임 차이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분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⁷⁾

한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에 관한 연구는 프레임 관점에서 언론이 이주민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진보/보수 양대 신문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이주민 프레이밍을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비교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보수지와 진보지 모두 이주민을 ‘외국인’ 또는 ‘불법체류’와 같은 용어로 묶어 표현하며, 그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다.⁸⁾ 이러한 결과는 언론사 이념 성향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내 신문사의 다문화 이슈 보도를 다수 언론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와 같은 주제 프레임이 기사 전반에 걸쳐 어떻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설명하였다.⁹⁾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민이 단순히 사건의 주체로 보도되기보다, 언론 내에서 특정 서사와 의미틀에 따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이주민 보도가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도

7) 양명철·한혜경, 위의 논문, 535쪽.

8) 양명철·한혜경, 위의 논문, 535쪽.

9) 이순향·남재일(2014), 「한국 신문 다문화 보도의 담론적 성격: 3개 신문의 다문화 보도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제18권 제2호, 135쪽.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연구는 이주민 관련 보도의 태도 형성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토하면서, 보도 방식이 국민 정체성 등 사회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¹⁰⁾

2) 기존 연구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많은 연구가 특정 언론사나 제한된 기간·이슈에 한정된 분석에 머물러, 한국 언론 전체에서 이주민 프레이밍이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패턴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부 논문은 특정 신문사의 다문화 보도 경향을 분석했지만, 이것이 한국 언론 전반의 프레이밍 체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증은 제한적이었다.¹¹⁾

둘째, 기존 연구들은 프레이밍의 사회적·심리적 효과에 주목했지만, 그 결과를 실제 보도 기준이나 언론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이주민에 대한 공포·위협 인식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논지는 존재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¹²⁾

3) 본 연구를 통한 기대 효과

본 연구의 기여는 분석 범위의 확장보다는 연구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했다는 점에 있다. 기존 연구들이 이주민 보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프레이밍의 특성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교육과 실천의 영역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주민 보도를 위한 교육용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언론 종사자뿐만 아니라 예비 언론인과 일반 시민 또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이주민 보도를 전문 직군 내부의 윤리적 논의에만 한정하지 않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주체까지 논의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아울러 연구 결과와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카드뉴스형식으로 재구성하

10) 김찬중(2020), 「외국인 이주민 관련 긍정적 뉴스 보도가 부정적 태도 감소에 미치는 효과」, 『언론정보연구』 제57권 제2호, 57쪽.

11) 이순향·남재일, 위의 논문, 135쪽.

12) 김찬중, 위의 논문, 53쪽.

여 배포함으로써, 복잡한 프레이밍 논의를 보다 직관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 보도 문제를 특정 집단의 전문적 논의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상적 미디어 소비 환경 속에서 공유·확산될 수 있는 담론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과정과 문제의식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공유함으로써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한다. 학술적 논의가 보고서나 논문에 머무르는 한계를 넘어, 탐사 과정과 고민의 맥락을 시각적 서사로 전달함으로써 이주민 프레이밍에 대한 공론장을 넓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이 제기해 온 이주민보도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도, 분석 결과를 교육 자료·시각 콘텐츠·다큐멘터리로 확장하여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

4)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필요성

이주민 보도와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헌 연구나 기사 텍스트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주민 보도는 단순히 기사에 드러난 표현이나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의 판단, 보도 이전의 내부 논의, 윤리적 고려, 조직 차원의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과물인 기사만을 분석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 해당 결정을 내리는 주체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주민과 난민을 다루는 보도는 취재 대상의 안전, 법적 지위, 언어 장벽, 문화적 맥락 등 다양한 민감 요소를 동반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관련 기관은 무엇을 보도할지뿐 아니라, 무엇을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표현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공식 문서나 가이드라인에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조직 내부의 경험과 관행, 가치관에 따라 형성된다. 따라서 현지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는 이주민 보도의 실제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논의뿐 아니라 실천적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가이드라인은 추상적인 원칙 제시에 그칠 경우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수정·보완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천적 판단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주체로서, 그들의 설명은 가이드라인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아가 미국은 이주 문제가 정치적 담론, 제도, 미디어 환경 전반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사회로, 이주민 보도에 대한 찬반 여론과 사회적 반응이 비교적 빠르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맥락을 지닌다. 이러한 환경은 이주민 보도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인식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연구 조건을 제공한다. 따라서 미국 현지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는 특정 사례의 성과를 확인하기보다는, 이주민 보도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떤 논리와 판단에 따라 구성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의 타당성을 갖는다. 이는 향후 한국 사회의 이주민 보도를 분석할 때, 보도가 여론과 제도적 논의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비교·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5)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기대효과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는 이주민 보도를 둘러싼 논의가 추상적인 윤리 원칙이나 선언적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고려되는 판단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결과물만을 분석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취재 이전의 내부 논의, 표현 선택의 기준, 보도 여부에 대한 결정 과정 등을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이주민 보도의 실제 작동 방식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기관들이 이주민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보도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별 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 기관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칙과 판단 기준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축적된 질적 자료는, 이후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인 규범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주민 보도와 소통 과정에서 참고 가능한 실천적 지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국내 탐사

1) 국내 탐사 과정

국내 탐사는 기존논문과 공개 자료 조사를 통해 이주민 관련 단체 및 미디어 기관들이 이주민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언론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이주민 인권 보호와 이주민 관련 담론 형성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활동 현황과 한국 언론의 개선점 및 정확한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이주민 관련 기관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이 섭외의기준으로는 첫째, 이주민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둘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셋째, 언론 보도와 공적 담론 속에서 이주민의 재현 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온 경험이 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는 다문화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언론 보도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 보도 전반을 감시하며 이주민 관련 보도에서 반복되는 프레이밍과 차별적 표현을 비판한다. 이주민 보도의 구조적 문제와 언론 감시 활동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단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며, 이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제도적 한계를 현장에서 직접 다루고 있다. 이주민 보도가 법적 권리 행사와 삶의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문가 및 기관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의식과 현장 경험을 확인한 후,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이 실제 언론 기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기사 표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가 현장의 체감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질적 자료라면, 기사 표본 분석은 언론 보도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과 프레이밍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분석 단계로 설정되었다.

기사 표본은 난민, 불법 체류자, 외국인 범죄라는 3가지의 이주민 관련 키워드를 선정하여 빅카인즈를 통해 수집하였다. 먼저, 진보 매체를 대표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수 매체로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로 구분하여 각

키워드에서 매체별로 5개씩 수집하였다. 즉, 키워드별로 총 20개의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0개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5개의 기사는 2025.01 ~ 2026.01 발행된 기사 중 스트레이트 기사 4개와 기획 기사 1개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기사의 프레임은 구글폼을 통한 응답으로 통계를 확보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문제 정의 프레임, 원인 귀속 프레임, 주체 프레임(행위자 재현 방식), 감정 및 어조 프레임, 해결책 및 대안 프레임, 최종 프레임 분류의 6가지 항목으로 프레임 유형을 먼저 구분하였다. 추가적으로, 실명/가명/국적 강조 여부, 개인 사례vs집단 일반화, 정보의 출처/목소리 구성, 언어/표현 점검, 사용된 시각 자료,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과 연결될 포인트의 6가지 항목으로 추가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기사 분석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프레임 이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사 서술 방식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한 작업적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해당 분류 기준은 이론적 프레임 유형을 검증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사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서술 경향을 체계적으로 비교·정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류 기준은 기사에서 무엇이 중심으로 강조되는지, 그리고 사건이 어떤 관점에서 서술되는지를 기준으로 구성된 범주이다. 이를 통해 난민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정의 방식, 주체 설정, 감정·어조의 경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기준은 분석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적 도구라는 점에서, 기존 프레임 이론 전반을 대표하거나 포괄하는 체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프레임 정의와 검증을 통해, 난민 보도 프레임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6가지의 프레임 구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 정의 프레임은 ‘이 기사가 무엇을 문제라고 규정하는가’, ‘문제의 초점이 이주민 개인인가, 사회 구조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안전/치안 문제, 법/질서/제도 위반 문제, 사회적 갈등/불안 문제, 행정/정책의 미비,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 문제로 규정하지 않음/중립적 전달, 기타로 구분하였다.

원인 귀속 프레임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설명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민 개인의 선택/영향, 문화적 차이/적응 실패, 법/제도의 허점, 정부/국가의 관리 실패, 경제 구조/노동 환경, 국제 정세/외부 요인, 원인 제시

없음, 기타로 구분하였다. 주제 프레임은 행위자 재현 방식을 의미하며, ‘이주민은 어떠한 존재로 그려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협적 존재, 관리/통제의 대상, 피해자, 동정의 대상, 노동력/경제 주체, 사회 구성원, 익명적 집단(개별성 없음), 기타로 구분하였다.

감정/어조 프레임은 기사 전반의 정서적 톤을 구분하기 위해 파악하였으며, ‘독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유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항목은 공포, 분노, 동정, 중립, 공감, 경계, 모르겠음, 기타로 구분하였다. 해결책/대안 프레임을 통해서는 ‘이 기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해결의 방향이 배제인가, 포용인가’를 파악한다. 단속/처벌 강화, 법/제도 개선, 행정 관리 강화, 사회 통합/지원 확대, 인식 개선/교육, 개인 책임 강조, 대안 제시 없음, 기타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프레임 분류는 해당 기사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프레임을 파악하기 위한 분류이며, 위협/치안 프레임, 관리/통제 프레임, 인권 보호 프레임, 개인 일탈 프레임, 구조적 문제 프레임, 중립/정보 전달 프레임, 기타로 분류하였다.

2) 국내 선행 연구 내용

① 난민

[표A-1] 매체별 난민 보도 프레임 유형 요약 : 진보 매체

*분석 결과 가장 많았던 1순위 프레임 유형을 작성하되, 2순위와 표본의 수 차이가 1개 이하일 경우 2순위를 함께 순서대로 표기하였다.

구분	한겨레	경향신문
문제 정의 프레임	행정/정책의 미비,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	행정/정책의 미비,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
원인 귀속 프레임	정부, 국가의 관리 실패	법/제도의 허점, 정부/국가 관리 실패
주체 프레임	관리/통제의 대상, 동정의 대상	피해자, 사회 구성원
감정/어조 프레임	공감, 동정, 경계	공감, 동정, 분노
해결책/대안 프레임	법/제도 개선	법/제도 개선, 사회 통합/지원 확대
최종 프레임 분류	구조적 문제 프레임	인권 보호 프레임, 구조적 문제 프레임

[표A-2] 매체별 난민 보도 프레임 유형 요약 : 보수 매체

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제 정의 프레임	모든 유형이 골고루 나타남	사회 안전/치안 문제, 법/질서/제도 위반 문제,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
원인 귀속 프레임	법/제도의 허점, 정부/국가의 관리 실패	이주민 개인의 선택/영향, 정부/국가의 관리 실패
주체 프레임	관리/통제의 대상	관리/통제의 대상
감정/어조 프레임	경계, 공포, 분노	공포, 동정, 경계
해결책/대안 프레임	법/제도 개선	대안 제시 없음
최종 프레임 분류	위협/치안 프레임, 개인 일탈 프레임, 구조적 문제 프레임	위협/치안 프레임, 인권 보호 프레임, 구조적 문제 프레임

[표B-1] 난민 보도 문제 지점 체크리스트 : 진보 매체

*문제 해당 기사의 수/전체 기사의 수를 표기하였다.

구분	한겨레	경향신문
국적/신분 강조	5/5	5/5
집단 일반화	1/5	2/5
당사자 배제	3/5	1/5
균형성 부족	3/5	3/5
맥락(통계/구조) 부족	1/5	X
부적절한 시각 자료	X	X
선정적 제목/표현	X	1/5
낙인적 용어 사용	X	X

[표B-2] 난민 보도 문제 지점 체크리스트 : 보수 매체

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적/신분 강조	5/5	5/5
집단 일반화	1/5	1/5
당사자 배제	3/5	X
균형성 부족	3/5	2/5
맥락(통계/구조) 부족	1/5	2/5
부적절한 시각 자료	1/5	1/5
선정적 제목/표현	3/5	2/5
낙인적 용어 사용	2/5	X

난민 키워드 보도 분석 결과, 진보·보수 매체를 막론하고 난민을 구조적·제도적 문제의 맥락에서 다루는 기사와 사회 안전 및 치안의 문제로 설명하는

기사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난민 보도가 단일한 프레임에 의해 구성되기보다는, 보도 주제와 국면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이 병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보 매체(한겨레·경향신문)의 경우, 난민 문제를 주로 행정·정책의 미비나 장기적 사회 문제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보수 매체(조선일보·중앙일보)에서는 사회 안전이나 법·질서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둔 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난민을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설명하는 서술이 일부 기사에서 관찰되었다.

다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죄·치안 국면의 기사에서는 매체 간 프레임 방식이 일정 부분 유사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즉, 평상시에는 구조적·인권적 맥락을 강조하던 매체라 하더라도, 범죄 사건을 다룰 경우 난민을 잠재적 위험 요인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서술이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난민 보도에서 특정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는 관행적 서술 틀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난민 보도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된 지점은 주체 프레임의 설정 방식이었다. 진보 매체는 난민을 제도적 실패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존재로 묘사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원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경향신문의 경우, 난민을 단순한 동정의 대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에 통합되어야 할 구성원으로 위치시키는 서술이 다수 확인되었다.

반면 보수 매체에서는 난민이 정책적 관리나 치안의 대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서술은 기사 전반의 어조에서도 경계나 불안,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난민을 사회적 행위의 주체라기보다 정책과 제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국적 및 난민 신분의 강조는 진보·보수 매체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난민 보도에서 국적·신분 정보는 진보 매체에서도 모든 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보수 매체와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적과 난민 신분이 단순한 배경 정보라기보다, 난민 보도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는 설명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개별 사건이나 행위를 집단적 특성으로 연상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특히 범죄나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국적·신분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될 경우, 독자가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난민 집단 전체

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난민 보도에서 국적·신분 언급의 필요성과 활용 방식에 대한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당사자 배제와 균형성 부족 문제는 매체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 매체에서는 일부 기사에서 당사자 목소리가 제한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구조적 맥락 설명이나 제도적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반면 보수 매체에서는 경찰·사법기관 중심의 정보 출처가 상대적으로 자주 활용되면서, 사건 해석이 단선적으로 제시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일부 기사에서 자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목이나 표현이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난민을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하게 만들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에 비해 표현 수위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양상을 보였으나, 문제 제기가 정책적 논의나 대안 제시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사례도 관찰되었다.

종합하면, 난민 보도는 매체 성향에 따라 기본적인 서술 경향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국적·신분 강조, 범죄 국면에서의 위협 프레임 강화, 당사자 목소리의 제한적 활용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난민 보도가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전이라는 두 담론 사이에서, 보도 상황에 따라 특정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내포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불법 체류자

[표C-1] 매체별 불법 체류자 보도 프레임 유형 요약 : 진보 매체

구분	한겨레	경향신문
문제 정의 프레임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 행정/정책의 미비	법/질서/제도 위반 문제
원인 귀속 프레임	경제 구조/노동 환경	이주민 개인의 선택/영향
주체 프레임	피해자, 동정의 대상, 노동력, 경제 주체	위협적 존재
감정/어조 프레임	동정, 분노	공포, 동정, 경계
해결책/대안 프레임	법/제도 개선	법/제도 개선, 대안 제시 없음
최종 프레임 분류	인권 보호 프레임	중립/정보 전달 프레임

[표C-2] 매체별 불법 체류자 보도 프레임 유형 요약 : 보수 매체

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제 정의 프레임	법/질서/제도 위반 문제	법/질서/제도 위반 문제
원인 귀속 프레임	이주민 개인의 선택/영향	이주민 개인의 선택/영향
주체 프레임	위험적 존재, 관리/통제의 대상	위험적 존재
감정/어조 프레임	공포, 경계	공감, 동정
해결책/대안 프레임	법/제도 개선	법/제도 개선, 사회 통합/지원 확대, 인식 개선/교육
최종 프레임 분류	관리/통제 프레임	인권 보호 프레임, 구조적 문제 프레임

[표D-1] 불법 체류자 보도 문제 지점 체크리스트 : 진보 매체

구분	한겨레	경향신문
국적/신분 강조	5/5	3/5
집단 일반화	1/5	5/5
당사자 배제	X	X
균형성 부족	X	2/5
맥락(통계/구조) 부족	X	X
부적절한 시각 자료	1/5	X
선정적 제목/표현	X	1/5
낙인적 용어 사용	2/5	X

[표D-2] 불법 체류자 보도 문제 지점 체크리스트 : 보수 매체

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적/신분 강조	4/5	4/5
집단 일반화	5/5	2/5
당사자 배제	5/5	3/5
균형성 부족	X	1/5
맥락(통계/구조) 부족	4/5	2/5
부적절한 시각 자료	X	1/5
선정적 제목/표현	2/5	3/5
낙인적 용어 사용	3/5	1/5

불법 체류자 키워드 보도 분석 결과, 난민 보도와 비교할 때 문제 정의 단계에서부터 매체 간 프레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진보 매체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 혹은 행정·정책의 미비와 연관 지어 설명하며, 노동 환경이나 경제 구조 등 제도 외적 요

인을 함께 고려하는 서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보수 매체는 불법 체류 자체를 법·질서 및 제도 위반의 문제로 설명하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일부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불법 체류자 보도가 난민 보도에 비해 ‘불법성’이라는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문제 정의가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형성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동일한 이주민 범주에 속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를 해석하는 방향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설명 장치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난다.

불법 체류자 보도에서 주제 프레임 역시 매체 성향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진보 매체는 불법 체류자를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 속에서 형성된 노동 주체이자 제도적 취약성의 영향을 받은 존재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겨레의 경우, 불법 체류를 개인의 일탈로 단순화하기보다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구조적 결과로 설명하며, 문제 제기나 공감 중심의 감정 프레임을 함께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반면 보수 매체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사회 질서나 제도 운영과 관련된 문제의 대상으로 제시되거나, 관리·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모두 불법 체류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서술이 일부 기사에서 반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는 사회 구성원이나 경제적 주체로서의 맥락보다는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 한정되어 제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 보도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진보 매체 내부에서도 프레임의 일관성이 항상 유지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한겨레가 구조적 문제와 인권 보호 프레임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한 반면, 경향신문의 경우 일부 기사에서는 법·질서 및 제도 위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전면에서 제시되며, 중립적 정보 전달에 가까운 서술 방식이 나타났다.

이는 불법 체류자 보도가 난민 보도에 비해 ‘인권’보다 ‘법적 지위’가 우선적으로 호출되는 주제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진보 매체라 하더라도 ‘불법 체류’라는 개념이 중심이 되는 경우, 구조적 설명보다 법적 상태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앞서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문제 지점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불법 체류자 보도에서는 집단 일반화와 당사자 배제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진보 매체 중 경향신문에서는 집단 일반화가 일부 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보수 매체에서는 집단 일반화와 당사자 배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가 비교적 자주 관찰되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불법 체류자 보도에서 당사자 발화가 제한적으로 제시되거나 제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불법 체류자가 직접 발화하는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 서술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수 매체에서는 맥락 설명(통계 자료나 구조적 배경 제시)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불법 체류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설명하는 서사와 결합되어, 독자가 불법 체류자 집단 전체를 문제적 존재로 인식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불법 체류자 보도가 난민 보도에 비해 낙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불법 체류자 보도는 난민 보도에 비해 문제 정의 단계에서부터 법·질서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개별 행위가 집단 전체의 특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국적·신분 강조, 집단 일반화, 당사자 배제는 불법 체류자를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주요 서술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외국인 범죄

[표E-1] 매체별 외국인 범죄 보도 프레임 유형 요약 : 진보 매체

구분	한겨레	경향신문
문제 정의 프레임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 행정/정책의 미비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
원인 귀속 프레임	법/제도의 허점	법/제도의 허점, 정부/국가의 관리 실패
주체 프레임	피해자, 사회 구성원	피해자, 사회 구성원
감정/어조 프레임	동정, 공감	공감, 동정
해결책/대안 프레임	법/제도 개선, 사회 통합/지원 확대	법/제도 개선, 사회 통합/지원 확대, 인식 개선/교육
최종 프레임 분류	인권 보호 프레임	인권 보호 프레임, 구조적 문제 프레임

[표E-2] 매체별 외국인 범죄 보도 프레임 유형 요약 : 보수 매체

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제 정의 프레임	법/질서/제도 위반 문제	사회 안전/치안 문제
원인 귀속 프레임	이주민 개인의 선택/영향	이주민 개인의 선택/영향, 경제 구조/노동 환경
주체 프레임	관리/통제의 대상	위협적 존재
감정/어조 프레임	공포, 분노	공포, 동정
해결책/대안 프레임	단속/처벌 강화	단속/처벌 강화, 대안 제시 없음
최종 프레임 분류	관리/통제 프레임	위협/치안 프레임

[표F-1] 외국인 범죄 보도 문제 지점 체크리스트 : 진보 매체

구분	한겨레	경향신문
국적/신분 강조	3/5	3/5
집단 일반화	4/5	2/5
당사자 배제	1/5	1/5
균형성 부족	2/5	X
맥락(통계/구조) 부족	X	X
부적절한 시각 자료	1/5	X
선정적 제목/표현	X	X
낙인적 용어 사용	X	X

[표F-2] 외국인 범죄 보도 문제 지점 체크리스트 : 보수 매체

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적/신분 강조	4/5	5/5
집단 일반화	1/5	2/5
당사자 배제	1/5	X
균형성 부족	1/5	X
맥락(통계/구조) 부족	3/5	2/5
부적절한 시각 자료	X	X
선정적 제목/표현	X	2/5
낙인적 용어 사용	3/5	X

외국인 범죄 키워드 보도 분석 결과, 해당 보도는 세 가지 이주민 키워드 가운데 사건 중심 서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범죄 보도에서는 사건 발생 자체가 기사 구성의 중심이 되면서, 범죄 행위를 둘러싼 구조적 맥락이나 제도적 배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특히 보수 매체에서는 외국인 범죄를 사회 안전과

치안의 문제로 설명하며, 범죄 행위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 진보 매체는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를 단순한 치안 문제로 환원하기보다는, 행정·정책의 미비나 제도적 한계를 함께 언급하며 구조적 맥락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외국인 범죄 보도는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 보도에 비해 범죄 사실 전달이 서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사건의 핵심 요소로 결합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 보도에서 주제 프레임 역시 매체 성향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진보 매체는 외국인을 범죄의 가해자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재현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특히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에서는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며 주제 프레임을 확장하려는 서술이 나타났다.

반면 보수 매체에서는 외국인이 위협적 존재이거나 관리·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상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범죄를 법·질서 위반의 문제로 설명하며 단속과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중앙일보 역시 사회 안전과 치안 문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를 다루면서 경계와 불안을 강조하는 감정 프레임이 비교적 자주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맥락보다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외국인 범죄 보도의 특징적인 지점은 진보 매체에서도 집단 일반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겨레의 경우 외국인 범죄 보도에서 집단 일반화가 다수의 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 보도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범죄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외국인’이라는 범주가 개인의 행위를 넘어 집단적 특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범죄 보도가 다른 이주민 키워드에 비해 사건의 자극성과 사회적 불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쉬운 영역임을 시사한다. 즉, 보도의 초점이 범죄 사실 전달에 집중될수록, 집단 일반화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설명이나 맥락 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 범죄 보도에서는 국적과 신분 강조가 진보·보수 매체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수 매체에서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

되었다. 중앙일보는 국적·신분 강조가 모든 기사에서 나타났고, 조선일보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범죄 설명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범죄 행위와 특정 집단의 정체성이 강하게 결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보수 매체에서는 자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사용과 맥락 설명의 부족이 함께 관찰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범죄를 사회 구조의 문제나 개별 사건으로 인식하기보다, 외국인 집단 전체의 특성으로 확장해 인식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범죄 예방이나 정책적 논의보다는 경계와 불안의 정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외국인 범죄 보도는 세 가지 이주민 키워드 가운데 범죄 중심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의 국적과 신분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개별 사건이 집단 이미지로 확장되는 반면, 당사자의 맥락이나 구조적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외국인 범죄 보도가 사회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 재생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④ 매체별 종합

[표G-1] 매체별 보도 프레임 유형 요약 : 진보 매체

구분	한겨레	경향신문
문제 정의 프레임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11), 행정/정책의 미비(10)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11)
원인 귀속 프레임	정부/국가의 관리 실패(9), 법/제도의 허점(8)	법/제도의 허점(10), 정부/국가의 관리 실패(9)
주체 프레임	피해자(12)	피해자(11)
감정/어조 프레임	동정(8), 공감(7)	공감(11), 동정(9)
해결책/대안 프레임	법/제도 개선(9)	법/제도 개선(10)
최종 프레임 분류	인권 보호 프레임(9), 구조적 문제 프레임(9)	인권 보호 프레임(9)

[표G-2] 매체별 보도 프레임 유형 요약 : 보수 매체

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제 정의 프레임	법/질서/제도 위반 문제(10)	사회 안전/치안 문제(7), 법/질서/제도 위반 문제(7)
원인 귀속 프레임	이주민 개인의 선택/영향(10)	이주민 개인의 선택/영향(8)
주체 프레임	관리/통제의 대상(10)	관리/통제의 대상(6), 위협적 존재(5)
감정/어조 프레임	공포(8), 경계(7), 분노(6)	공포(6), 중립(5), 경계(5)
해결책/대안 프레임	단속/처벌 강화(7), 법/제도 개선(7)	단속/처벌 강화(6), 법/제도 개선(5)
최종 프레임 분류	관리/통제 프레임(8)	위협/치안 프레임(6)

[표H-1] 매체별 보도 문제 지점 체크리스트 : 진보 매체

구분	한겨레	경향신문
국적/신분 강조	13/15	11/15
집단 일반화	6/15	9/15
당사자 배제	4/15	2/15
균형성 부족	5/15	5/15
맥락(통계/구조) 부족	X	X
부적절한 시각 자료	2/15	X
선정적 제목/표현	X	2/15
낙인적 용어 사용	2/15	X

[표H-2] 매체별 보도 문제 지점 체크리스트 : 보수 매체

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적/신분 강조	13/15	14/15
집단 일반화	7/15	5/15
당사자 배제	9/15	3/15
균형성 부족	4/15	3/15
맥락(통계/구조) 부족	8/15	6/15
부적절한 시각 자료	1/15	3/15
선정적 제목/표현	5/15	7/15
낙인적 용어 사용	8/15	1/15

난민, 불법 체류자, 외국인 범죄 보도를 종합하여 매체별로 이주민을 어떠한

문제로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체 간 차이는 단순한 정치적 성향의 대비를 넘어, 문제 정의 방식, 원인 귀속의 방향, 주제 프레임 설정, 감정·어조의 선택, 그리고 보도 위험 요소의 분포에서 비교적 일관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세 키워드 전반에 걸쳐 이주민 문제를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로 정의하는 서술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한 매체로 확인되었다. 난민과 외국인 범죄 보도에서 행정·정책의 미비와 제도적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며, 이주민을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자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감정·어조 프레임 역시 공감과 동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주민에 대한 도덕적 연대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다만 이러한 인권 중심 접근은 동시에 이주민을 능동적 행위자라기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서술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특히 정책 비판이나 구조 설명에 초점을 둔 기사에서는 당사자 발화가 제한되거나 집단 단위 서술이 강화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이는 한겨레 보도가 인권 담론을 통해 이주민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비교적 일관성을 보이지만, 이주민을 사회적 행위의 주체로 재현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향신문은 이주민 보도를 제도 비판과 사회 통합 담론으로 연결하려는 특징을 보였다. 난민과 외국인 범죄 보도에서는 구조적 문제와 행정의 한계를 강조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 보도에서는 노동 환경과 경제 구조를 함께 언급하며 이주민을 경제적·사회적 주체로 재현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는 경향신문이 이주민을 단순한 피해자로 한정하기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에 통합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보도에서는 법·질서 위반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전면에 제시되며, 진보 매체 내부에서도 프레임의 일관성이 완전히 유지되지 않는 지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는 집단 일반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구조 비판이 의도와 달리 이주민 집단 전체를 문제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드러났다. 이는 경향신문 보도가 사회 구조를 강조하면서도, 키워드의 법적 성격에 따라 서사적 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앙일보는 네 개 매체 가운데 프레임 혼재 양상이 비교적 두드러진 매체로 나타났다. 난민 보도에서는 중립적 정보 전달 기사와 인권 보호 프레임이 함께 나타난 반면, 범죄·치안 국면에서는 위협 및 치안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앙일보가 이주민 문제를 단일한 이

념적 틀에 고정하기보다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프레이밍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혼재성은 결과적으로 이주민 이미지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한다. 특히 범죄 기사에서는 국적·신분 강조와 사건 중심 서사가 결합되며, 대안 제시가 제한적인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앙일보의 중립성은 정보 전달의 균형이라는 장점과 함께, 문제 제기가 구조적 논의로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동시에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선일보는 세 키워드 전반에서 이주민 문제를 법·질서 및 사회 안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난민, 불법 체류자, 외국인 범죄 보도 모두에서 이주민은 관리·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상 혹은 사회적 위험 요소로 재현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감정·어조 프레임 역시 경계와 불안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범죄 보도에서는 국적·신분 강조, 자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목, 낙인 효과를 동반할 수 있는 표현이 결합되며 보도 위험 요소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이주민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며, 개별 사건이 집단적 특성으로 확장 해석될 여지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판결·절차 중심 기사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시도가 전체적인 프레임 경향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종합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구조·인권 프레임을 중심으로 이주민을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치안·질서 프레임을 통해 이주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재현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중앙일보는 두 경향이 혼재된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사안에 따라 상이한 이주민 이미지가 생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매체별 차이는 이주민 보도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어떤 사회적 질문을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편집적 선택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동일한 사건과 키워드라 하더라도, 매체의 프레임 선택에 따라 이주민은 권리의 주체로 재현될 수도 있고,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 있는 프레이밍 전략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⑤ 진영별 종합

[표] 진영별 보도 프레임 유형 요약

구분	진보 매체	보수 매체
문제 정의 프레임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22)	법/질서/제도 위반 문제(17)
원인 귀속 프레임	정부/국가의 관리 실패(18), 법/제도의 허점(18)	이주민 개인의 선택/영향(18)
주체 프레임	피해자(23)	관리/통제의 대상(16)
감정/어조 프레임	공감(18), 동정(17)	공포(14)
해결책/대안 프레임	법/제도 개선(19)	단속/처벌 강화(13), 법/제도 개선(12)
최종 프레임 분류	인권 보호 프레임(18)	관리/통제 프레임(12), 위협/치안 프레임(11)

[표] 진영별 보도 문제 지점 체크리스트

구분	진보 매체	보수 매체
국적/신분 강조	24/30 (80%)	27/30 (90%)
집단 일반화	15/30 (50%)	12/30 (40%)
당사자 배제	6/30 (20%)	12/30 (40%)
균형성 부족	10/30 (33%)	7/30 (23%)
맥락(통계/구조) 부족	X (0%)	14/30 (47%)
부적절한 시각 자료	2/30 (7%)	4/30 (13%)
선정적 제목/표현	2/30 (7%)	12/30 (40%)
낙인적 용어 사용	2/30 (7%)	9/30 (30%)

난민, 불법 체류자, 외국인 범죄 보도를 진보 매체와 보수 매체라는 진영 구분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주민 보도가 어떠한 인식 체계와 문제 설정 방식을 기반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와 보수 매체는 이주민을 다루는 기본 전제와 질문 설정에서부터 상이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문제 정의 프레임, 원인 귀속 방식, 주체 재현, 감정·어조 선택, 그리고 보도상의 문제 지점 분포 전반에 비교적 일관되게 반영되는 양상을 보였다.

- 문제 정의의 차이: 사회 구조의 문제와 질서의 문제

분석 대상 기사들을 종합할 때, 진보 매체는 세 키워드 전반에 걸쳐 이주민 문제를 구조적·장기적 사회 문제로 정의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자주 관찰되었다. 난민 보도에서는 행정·정책의 미비와 국제적 책임을, 불법 체류자 보도에서는 노동 시장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외국인 범죄 보도에서는 제도적 허점

과 관리상의 한계를 주요 쟁점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 정의 방식은 이주민을 사회 문제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의 영향 속에 놓인 존재로 위치시키는 서술 효과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보수 매체는 이주민 문제를 법·질서 및 사회 안전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서사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보도에서는 위반 행위와 개인의 선택이 핵심 문제로 제시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난민 보도에서도 치안·통제 프레임이 전면 배치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관찰되었다. 이러한 문제 정의는 이주민을 사회 질서의 관리 대상 혹은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하도록 작동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 원인 귀속과 책임 설정: 제도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문제 정의 방식의 차이는 원인 귀속 양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진보 매체는 이주민 관련 문제의 원인을 정부와 국가의 관리 실패, 법·제도의 허점, 경제 구조와 같은 제도적 요인에 귀속시키는 서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문제 해결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 한정하기보다 사회 시스템 전반으로 확장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논의를 촉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비해 보수 매체는 문제의 원인을 이주민 개인의 선택과 행위에 귀속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보도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단속과 처벌 강화라는 해결책으로 연결되는 서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인 귀속 방식은 이주민을 제도적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할 여지를 가진다.

- 주체 프레임과 감정·어조의 대비

주체 프레임과 감정·어조 프레임에서도 진영별 차이는 전반적으로 확인되었다. 진보 매체는 이주민을 피해자이자 보호의 대상,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재현하는 서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공감과 동정을 중심으로 한 감정 프레임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서사는 독자가 이주민을 이해와 연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보수 매체에서는 이주민이 관리·통제의 대상 혹은 위협적 존재로 재현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감정·어조 프레임 역시 경계와 불안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주민 보도가 사회적 불안을 자극하

고, 이주민을 타자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외국인 범죄 보도에서는 이러한 감정 프레임이 누적적으로 강화되며, 개별 사건이 집단 이미지로 확장 해석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 문제 지점의 분포: 질적 차이보다 집중도의 차이

문제 지점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국적·신분 강조는 진보와 보수 매체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이는 특정 진영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이주민 보도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 취약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집단 일반화, 당사자 배제, 선정적 제목이나 표현, 낙인적 용어 사용과 같은 문제 지점은 보수 매체에서 상대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보수 매체는 범죄·위반 국면에서 여러 문제 지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는 보도의 부정적 효과가 중첩될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진보 매체에서는 문제 지점이 비교적 분산되어 나타나며, 구조적 설명이나 제도적 맥락 제시를 통해 일부 완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 진영별 프레임 차이의 종합적 의미

종합하면, 진보 매체와 보수 매체의 이주민 보도 차이는 단순한 표현 수위의 차이라기보다, 이주민을 사회의 어떤 구성 요소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보 매체는 이주민을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를 드러내는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수 매체는 사회 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서사를 보다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독자가 이주민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에도 일정한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은 진영별 보도 관행의 차이를 전제로 인식한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문제 지점을 최소화하고 특정 프레임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국내 인터뷰 내용

①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는 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박옥식 이사장은 다문화청소년들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전개한다. 본 인터뷰는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언론 보도에 관한 박옥식 이사장의 소견을 담고 있다.

박옥식 이사장은 현장에서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문제들을 마주한다. 다문화가족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와 체류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며,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정체성 혼란 및 학교부적응 등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문제, 가족간 갈등 문제, 진로 직업과 관련한 문제 등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활동 도중 이주민에 대한 언론 보도가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포착했다. 이주민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주로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동계 등 제한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본다. 실제 다문화가정들의 상황과는 다른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박옥식 이사장은 이러한 보도가 이주민 인권과 사회적 인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이 언론 보도 내용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되고 편향된 언론 보도는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과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여 사회적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언론에 이주민들, NGO 및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언론다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문화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전문적 활동이나 사회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한 보도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사실 보도와 계몽적 성격의 프로그램 방영 등의 노력이 있다.

박옥식 이사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언론에 잘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개선이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말했다.

먼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능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두번째, 국민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언론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언론미디어를 학습하는 학생일 때부

터 참된 언론인상을 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자유롭고 실제적인 언론 보도를 위해 언론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박옥식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과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문제들이 개인의 적응이나 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보도 방식과 사회 구조 전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향후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과 대안적 미디어 실천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②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언론권력을 견제 및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언론시민단체이다. 1984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시민 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민언련은 시민 중심의 언론 감시와 언론 교육 활동을 통해 진실 보도와 공정보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시민이 언론의 주체가 되는 민주적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인터뷰는 언론이 이주민을 보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링을 하는지, 또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민언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을 담고 있다.

민언련은 인터뷰에서 크게 3가지의 이민자 보도 사례를 소개하였다. 첫번째로, 2019년 5월 13일 경 서울 구로동에서 남성 취객 2명이 영업 중인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큰 주목을 받으며 이른바 ‘서울대림동 여경 논란’,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는 왜곡된 시선을 담은 사건 명칭까지 달렸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경찰을 폭행한 가해자의 출신은 언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상당수 언론은 가해자가 ‘중국동포’ 출신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구로동 술집에서 중국동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만취해 소란’을 피웠다고 명시했다.¹³⁾ 동아일보는 가해자를 언급할 때마다 ‘중국

13) 이후연(2019.5.20), 「“남자분 나와요, 빨리 빨리” 취객 제압 못한 여경 논란」, 『중앙일보』.

동포’를 명시했으며, 한 기사에서 ‘중국동포’라는 말을 6회 반복 사용했다.¹⁴⁾ 조선일보 역시 가해자를 ‘중국동포 허모 씨’라고 설명했다.¹⁵⁾

한편, 민언련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같은 사건을 보도하며 ‘술 취한 남성’, ‘남성 주취자’ 등으로 표기했으며, ‘중국동포’ 같은 수식어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번째 사건은 2023년 4월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중국 동포 출신 9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다. 2021년 말부터 노래방 접대부 알선 조직을 운영하며 자신들이 고용한 접대부를 쓰지 않는 노래방 업주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 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4명의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언론보도의 특이점은 여러 언론이 해당 사건을 ‘현실판 범죄도시’라는 표현을 곁들여 보도했다는 점이다.¹⁶⁾¹⁷⁾¹⁸⁾ ‘범죄도시’는 중국 동포 출신 폭력조직을 일망타진한 강력반 형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영화 속 배경이 가리봉동이어서 언론이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세번째 사건은 2025년 5월 19일 경 보도된 두개의 사건이다. 먼저 시흥에서 50대 남성이 흥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이어서 발생한 사건은 화성 동탄에서 가해자가 흥기를 휘두르는 흥기 난동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 드러난 상태였다.

이 두 사건은 같은 날 KBS에서 모두비중 있는 뉴스로 편성되었다. 2025년 5월 19일, <연쇄 흥기 난동 4명 사상… 50대 중국인 체포>(민정희 기자)가톱 뉴스로 보도되었고, 이어 <단독/흥기 들고 ‘무차별’ 돌진… 40대 중국인 검거>(김보담 기자)가두 번째 주요 뉴스로 전해졌다.

14) 고도예(2019.5.20), 「경찰폭행 현장 지켜본 음식점 주인 “여성 경찰, 그 정도면 잘했다”」, 『동아일보』.

15) 광래건·김은중(2019.5.20), 「여성 경찰이 취객 제압 못했다고… “여경 다 없애라”는 사람들」, 『조선일보』.

16) 박준석(2023.4.20), 「영화 ‘범죄도시’가 현실로… 흥기 들고 가리봉 노래방 들썩신 중국동포 조폭」, 『한국일보』.

17) 정봉오(2023.4.20), 「영화 ‘범죄도시’ 현실판… 중국인 조직, 흥기협박 가리봉 노래방 장악」, 『동아일보』.

18) 성윤수(2023.4.20), 「현실판 ‘범죄도시’… 가리봉동 노래방 장악한 조선족 9명 검거」, 『국민일보』.

민언련은 두 보도의 공통점으로 가해자가 특정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라고 단정할 만한 정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적인 ‘중국인’을 드러내는 단어를 보도제목에 그대로 썼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언련은 인터뷰 중 사건들을 순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 이는 대략 6~7년이 지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언론의 행태가 변하지 않았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민언련은 위 세 사건에 대해 범죄와 이민자를 연결지어서 언론이 보도하기 때문에 이민자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일조하였다고 말했다.

민언련이 활동 중 관찰한 이주민 관련 보도의 주요 경향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민언련은 이주민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뿌리깊은 사례는 앞선 세 사례에서처럼 이주민을 국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연관 짓는 보도라고 설명했다. 이주민이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면 이주민의 국적을 언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중국 동포’들을 범죄와 연관 지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보도는 이주민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민언련은 2018년 벌어졌던 제주 난민 사태를 제시했다. 이는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사건이다. 당시 예멘 출신 난민들로 인해 범죄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거나 이미 늘어났다는 등 차별주의와 혐오에 기반한 허위사실이 떠돌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 사회적 낙인이 특히 서양 강대국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같은 아시아 이웃국가나 약소국을 향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고 차별, 혐오,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언련은 앞서 언급한 중국동포 사례 역시 우리 사회의 오래된 편견과 혐오임을 지적했다. 언론에서 중국동포를 범죄와 연관 지으며 국적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것과 별개로, 미디어도 중국동포 혐오의 시선을 키워낸 데서 무관하지 않았다. <황해>(2010), <신세계>(2013), <청년경찰>(2017), <범죄도시>(2017)와 같은 영화에서 중국동포가 피도 눈물도 없는 범죄자로 그려진 사실은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범죄와 이주민의 국적을 연관 짓는 보도는 만연한 반면 한국인이 범죄용의자인 경우 국적을 문제 삼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토대로 이주민이 용의자인 경우도 똑같이 다루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다.

민언련은 이주민들, NGO, 시민단체 등 당사자의 목소리가 언론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2019년 민언련은 ‘이주민 인권향상을 위한 모니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신문 지면기사,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등을 모니터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 다른 비영리단체의 목소리, 이주민의 목소리는 언론의 기획보도, 예를 들면 이주민 인권실태 혹은 특정 시점의 스스로 보도 행태를 돌아볼 때를 제외하고는 썩 반영되지 않고 있었음을 밝혔다.

한편, 보도준칙에는 반영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민언련은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에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에 이주민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상세히 나와 있음을 제시했다.

해당 보도준칙은 다음과 같다.¹⁹⁾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보도를 자제한다.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19)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2026.2.6),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해 웃음거리로 묘사하지 않는다.

민언련은 이주민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앞선 세 차례처럼, 시간이 흘러도 언론의 보도행태가 그다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잘못된 이주민 보도를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언론인과 일단 보도하고 대중들의 눈길을 끌고자 하는 언론인이 같은 언론사에서도 나뉘어 존재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KBS는 <팩트체크K/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2023년 6월 18일)에서 경찰청이 매년 취합하는 ‘범죄통계’와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검찰연감’ 자료를 바탕으로 교차확인하였다. 추세 파악을 위해 10년(2012~2021) 분량의 자료를 분석했다. 범죄통계는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집계한 것이고, 검찰연감은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서로 다르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체 범죄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에서 2.4% 수준으로 2% 안팎으로 나타났다. 체류 중인 외국인 (2022년 기준 224만 명)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채 안 되기 때문이 당연히 내국인 범죄가 훨씬 많았다.

KBS는 이에 앞서 <미디어 인사이트>(2015년 5월 10일) ‘인종·국적 강조한 외국인 범죄 보도’에서 “우리 언론들은 이주노동자나 외국인들의 범죄가 발생하면 제목에 특별히 범인의 ‘출신 국적’을 붙여 강조”한다, “중국 동포의 범죄를 다룰 때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과거의 사건들을 한번에 모아서 보여주기도” 한다며 다른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언련은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주민 보도는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언련은 미국 비영리단체 EJI(Equal Justice Initiative)에서 2021년 12월 16일 발표한 미디어 범죄 보도에 대한 인종적 편견 연구보고서(Report Documents Racial Bias in Coverage of Crime by Media)를 근거로 범죄 보도에서 국적, 인종 등이 부각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위 보고서에서는

“흑인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의 45%에서 범죄 현장 사진이 사용된 반면 백인 피고인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 8%만 범죄 현장 사진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 옹호단체 ‘센텐싱 프로젝트(The Sentencing Project)’에서 2016년 발표한 보고서는 “기자들은 백인 피해자와 흑인 가해자가 등장하는 범죄 기사에 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연구 결과, 뉴스 가치는 범죄의 대표성이나 참신함이 아니라, ‘인종차별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각본을 작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민언련은 위 보고서들을 뉴스가치의 초점을 얼마나 시청자 혹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서 잡아둘 수 있느냐에 둔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위 연구결과가 비단 미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백인 피해자와 흑인 가해자를, 한국인 피해자와 중국동포 가해자로 바꿔본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민언련은 언론을 위한 보도 준칙에는 충분한 것들이 많으며, 교육이 덜한 보도 준칙은 비단 이주민 관련 준칙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양심을 챙기는 방법 뿐이며, 시스템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함을 말했다.

더불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한 대중들이 기자의 이메일이나 시청자 게시판에 올리는 등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야 함을 말했다. 민언련은 언론인의 양심있는 행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의 인터뷰는 이주민 보도가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언련이 제시한 사례들은 범죄 보도에서 국적과 이주민 정체성이 어떻게 불필요하게 강조되며, 그 결과 특정 집단을 구조적으로 낙인화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동시에 언론 보도 준칙이 존재함에도 실천과 교육이 결합될 경우 그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③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센터 친구는 한국에 머무는 이주민을 위한 비영리단체이다. 인권 및 법률상담, 이주민교육프로그램, 문화교류프로그램, 문화 및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제공한다. 정효주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이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혐오와 차별의 양상, 법적 구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언론 보도가 이주민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망한다.

정효주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직면하는 문제로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친 혐오표현을 꼽았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약 500명의 예멘 난민이 입국한 이후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표현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들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던 상황을 상기시켰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도 무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범죄·전염병과 연결짓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의 발언이 이러한 혐오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혐오는 온라인에 그치지 않고, 중국인과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대림역 인근에서의 혐종 집회처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혐오표현이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주민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끊임없이 재생산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주민 상담의 상당수는 체류자격의 연장 및 변경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체류기간 도과로 단속되어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이 보호해제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의 이혼, 양육비, 친권 관련 상담 역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주민들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구제받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와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법률 용어의 장벽으로 인해 이주민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고,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로펌에 수임료를 지불했음에도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무료 법률구조 기관으로 넘긴 뒤 수임료를 가로챈 사례를 언급했다. 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센터에서 직접 절

차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서 이주민과 관련해 자주 간과되거나 왜곡되는 지점으로 정 변호사는 체류기간이 도과한 이주민을 ‘불법체류자’로 지칭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이 용어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이주민’, ‘체류도과’ 등의 대체 용어 사용을 권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언론이 여전히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언론이 이주민을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외부인으로, 한국 사회를 단일 민족 공동체로 상정하는 시선 역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언론 보도가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왜곡된 시선이 반영된 보도가 나갈 경우, 팩트체크되지 않은 정보가 그대로 수용되고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를 바로잡는 기사들은 의도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접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과도한 보도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주민들은 언론 보도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쏟아지는 혐오적 댓글을 직접 마주하게 되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댓글의 수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혐오를 언론 보도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자극적인 보도가 이러한 반응을 증폭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NGO와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이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 변호사는 이주민 이슈가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주목받고, 이후에는 관심이 빠르게 사라지는 경향을 지적했다.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을 당한 이주노동자 사건처럼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몰리지만, 일상적인 권리 침해 문제는 거의 조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이주민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점과, 다수의 시민이 이주민을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적다는 점도 이러한 무관심의 배경으로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주민 보도 개선을 위해 팩트체크 기사와 새로운 전달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인권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이주민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현안을 파악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기사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그 빈도와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10~30대가 익숙한 릴스와 숏츠 등 숏폼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효주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이주민 문제를 일회적 사건이 아닌, 혐오표현, 법적 접근성, 언론의 프레이밍이 중첩된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효주 변호사의 발언은 언론 보도의 방식과 언어 선택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강화할 수 있음을 드러내며, 동시에 정확한 용어 사용과 지속적인 팩트체크, 새로운 미디어 형식의 활용이 이주민 인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해외 탐사

1) 해외 탐사 과정

해외 탐사는 미국 내 이주민 보도 프레이밍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진보·중도·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매체를 각각 1개씩 선정하고, 각 매체에서 ‘이민자(immigrant)’를 핵심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한 뒤 기사 1편씩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후 해당 기사들을 대상으로 진영별 프레이밍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진보 및 중도 진영의 대표 매체를 각각 1개씩 선정한 후, 서로 다른 시기에 보도된 기사 2편씩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시기별 프레이밍 양상의 변화와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해외 탐사는 미국 내 이주민 관련 미디어 및 국제기구를 방문하고, 관련 논문과 자료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이주민 이슈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 및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도 관행이 사회적 인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관은 미국 내 이주민 이슈를 접해온 경험이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뉴욕에 기반한 기관으로 Feet in 2 Worlds와 Documented, 그리고 워싱턴 D.C.에 기반한 기관으로 국제 개발 분야 국제기구, 워싱턴 D.C. 소재의 한 사립대학과 Jesuit Refugee Service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일부 인터뷰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실명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인터뷰이의 동의 범위에 따라 기관 유형 또는 익명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Big Four 회계법인 중 한 곳에서 근무 중인 뉴욕시 거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이주민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였다.

2) 해외 선행 연구 내용

① 1단계 분석

본 단계에서는 미국 내 이주민 보도 프레임의 진영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보수·중도·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매체를 각각 1개씩 선정하였다. 보수 진영은 Fox News, 중도 진영은 AP News, 진보 진영은 Washington Post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 매체에서 ‘이민자’ 관련 기사를 1편씩 선정하여, 기사 제목·서술 방식·인용 주제·핵심 프레임을 중심으로 프레임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Fox News에서는 「Over100 illegal immigrants arrested in Colorado Springs massive underground nightclub raid」 기사를 분석하였다. AP News에서는 「Naturalized US citizens thought they were safe. Trump’s immigration policies are shaking that belief」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Washington Post에서는 「Immigrants forced to sleep on floors at overwhelmed ICE detention centers」 기사를 분석하였다.

(1) 진보 진영: Washington Post - 피해·인도주의 프레임

Washington Post는 이민자 구금 시설의 과밀 상태와 비인도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도를 전개한다. 기사에서는 구금자들이 바닥에서 잠을 자거나 화장실이 없는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 의료·위생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독자의 동정심과 인도적 문제의식을 자극한다. 이는 이민자를 보호의 대상이자 제도의 피해자로 조명하는 동정·인권 프레임에 해당한다.

인용 방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기사에는 ‘humanitarian(인도적)’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민자 권익을 옹호하는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발언이 주로 인용된다. 특히 다수의 구금자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원래 보석·가석방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민자 구금이 곧 범죄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중도 진영: AP News - 시민권·불안 프레임

AP News는 최근 이민 정책 변화 속에서 귀화 시민(naturalized citizens)이

느끼는 불안과 위기감을 중심으로 보도를 구성한다. 이 기사에서 귀화 시민은 ‘불법성’이나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정상적 시민이자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전제된다.

보도는 정책 변화가 이들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심리적 불안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사건 중심의 자극적 서술보다는 정보 전달과 맥락 설명에 무게를 둔다. 이를 통해 AP News는 이민 이슈를 이념적 대립보다는 제도 변화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문제로 다루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프레임을 보여준다.

(3) 보수 진영: Fox News - 범죄·위협 프레임

Fox News는 기사 제목부터 ‘illegal immigrants(불법 이민자)’라는 표현을 전면에서 내세우며, 해당 용어를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이민자를 법 질서 위반자이자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하는 범죄 프레임을 강화한다. 특히 기사에서는 대규모 단속 현장을 ‘underground nightclub(지하·비밀 클럽)’로 묘사하고, 마약·무기·매춘·갱단 등 범죄적 요소를 나열함으로써 공간 자체를 위협적이고 음성적인 장소로 구성한다.

또한 Donald Trump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이민자들을 ‘bad people’로 규정하는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이는 어떤 발화자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프레이밍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100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라는 집단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행위가 아닌 ‘불법 이민자 전체 집단’이 문제라는 일반화 효과를 낳는다.

② 2단계 분석

본 단계에서는 동일 매체 내에서 이주민 보도 프레이밍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거나 유지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대표 매체를 각각 1개씩 선정하고 시기별 기사 2편씩을 비교하였다. 진보 진영은 The Guardian의 2018년·2025년 기사를, 보수 진영은 FoxNews의 2018년·2024년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프레임 유형·취재원 구성·언어 사용·시각자료 활용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진보 진영 매체인 TheGuardian의 분석 대상 기사는 2018년 보도된 「Why are families being separated at the US border?」와 2025년 보도된 「‘A publicity stunt’: activists decry Trump’s immigration raids

marketed as ‘entertainment’」이다. 두 기사는 모두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이민 정책을 다루고 있으나, 전자는 국경 정책으로 인한 가족 분리와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직접적 피해를 중심으로 서술한 반면, 후자는 이민자 단속이 정치적 퍼포먼스이자 미디어 이벤트로 소비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시기별 프레이밍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보수 진영 매체인 Fox News의 분석 대상 기사는 2018년 보도된 「Migrantcaravans swell to 12,000, get some help along the way」와 2024년 보도된 「NYTimes report confirms Biden admin oversaw largest immigration surge ‘in US history」」이다. 두 기사 모두 이주민의 규모와 이동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규모 이동과 인구 증가를 위기 및 안보 문제와 연결 짓는 서술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내 프레이밍의 지속성과 강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1) 진보 진영(The Guardian)

- 2018년 보도피해자·인도주의 프레임

2018년 The Guardian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zero-tolerance’ 정책 시행 이후, 불법 입국자에 대한 형사 기소 원칙이 적용되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현실을 설명한다. 이 보도는 아동의 처우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의학계와 인권단체의 경고, 변호사 및 보호시설 관계자의 증언을 다수 인용한다.

기사에서는 ‘children in cages’, ‘irreparable harm’ 등 정서적·도덕적 함의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고, 수용시설 내부 사진과 영상 등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독자의 공감과 문제의식을 유도한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 보도는 이주민, 특히 아동을 정책의 직접적 피해자로 조명하는 인도주의·피해자 중심 프레임이 지배적이다.

- 2025년 보도권력·공연성 비판 프레임

2025년 The Guardian 기사는 이민자 단속 행위 자체를 정치적 퍼포먼스이자 미디어 이벤트로 해석하며 비판한다. 단속 과정이 ‘보여주기식’으로 연출되고, 그 결과 이주민의 고통이 엔터테인먼트화된다는 점을 인권단체와 활동가의 발언을 통해 강조한다.

‘publicity stunt’, ‘made for TV’, ‘desensitize’ 등 미디어화와 이미지 생

산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정부와 행정관의 SNS 게시물, 방송용 이미지, 공식 배포 영상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기사에서는 정부가 공개하는 일일 체포 수치의 검증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숫자와 이미지가 어떻게 여론을 구성하는지를 문제 삼는다. 이는 단순한 피해 서술을 넘어, 권력과 미디어 전략 자체를 비판하는 프레임으로의 확장을 보여준다.

- 시기 비교

2018년 보도가 개별 피해와 인권 침해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025년 보도는 이주민을 둘러싼 담론과 이미지 생산 구조, 즉 보도 방식과 미디어 유통 시스템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 서사에서 벗어나, 권력·미디어·시각화 전략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이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보수 진영(Fox News)

- 2018년 보도이동 규모 중심의 위기 프레임

2018년 Fox News 기사는 중남미에서 출발한 대규모 이주민 카라반 현상을 현장 리포트 형식으로 전달한다. 제목과 본문 전반에서 이동 인원의 규모와 확산성을 강조하며, 이주민 이동이 국경과 치안, 사회 질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암시적으로 제시한다.

‘caravan swells’, ‘makes record miles’와 같은 동사를 사용해 증가·확대 이미지를 부각하고, 대형 행렬과 이동 장면을 담은 사진·영상을 통해 현장성과 긴박감을 강화한다. 해당 기사가 ‘border crisis’ 섹션에 포함된 점은 이 사안을 안보와 통제의 문제로 연결 짓는 프레임을 뒷받침한다.

- 2024년 보도수치·통계 기반의 위기·부담 프레임

2024년 기사에서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2021~2023년 사이 미국이 ‘사상 최대’ 순이민을 기록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largest immigrationsurge in US history’, ‘surge’, ‘illegal immigrants’ 등의 표현이 반복되며, 수치와 통계를 전면에 내세워 사회적 부담과 위기 인식을 강화한다.

취재원 역시 보고서와 보수 성향 정책 비평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시각자료는 국경 경비대와 봉쇄 장면 등을 활용해 경계와 위협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정량적 데이터가 객관적 사실로 제시되지만, 해석은 위기·통제 프

레이스에 밀착되어 있다.

- 시기 비교

Fox News의 경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위기·안보 프레임의 기본 기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수치와 통계를 적극 활용해 ‘객관적 위기’라는 인상을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숫자와 규모 제시가 프레임을 고착화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함을 보여주며, 향후 가이드라인에서 ‘숫자=위기’의 자동적 연결에 대한 경계 필요성을 시사한다.

3) 해외 심층 인터뷰

① Feet in 2 Worlds

(1) 기관설명

Feet in 2 Worlds는 비영리 언론 단체로, 미국 전역의 이주민 기자와 유색인종 기자들을 대상으로 펠로우십, 인턴십, 워크숍 등을 제공하며 저널리즘 교육과 커리어 성장을 돕는다. 또한 자체적으로 독립 보도를 제작하며, 기후 변화, 정치, 허위정보 등 다양한 주제를 미국에 사는 이주민의 관점에서 다룬다. Mia는 Feet in 2 Worlds에서 2024년부터 디렉터로 일해왔으며, 프로그램 총괄, 모금, 대외 활동 등을 맡고 있다.

Mia는 Feet in 2 Worlds와 같은 이주민 중심 매체는 주류 언론과 달리 이주민을 이야기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둔다고 말했다. 즉, 이주민을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다루려고 노력하는 매체인 것이다. 또 다른 차별점으로는 이주민 기자를 직접 고용하여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점이 있었다. Mia는 해당 기관에서 기사를 하는 사람 자체가 이주민인 경우가 많고, 이 두 정체성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이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아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 기자의 배경

Mia는 기자의 배경이 오히려 보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저널리즘에 오랫동안 ‘객관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었으며, 기자의 배경이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Feet in 2 Worlds는

이러한 관점과 달리 기자의 배경이 보도 과정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믿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5년 Feet in 2 Worlds가 보도한 기사들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을 취재할 때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기자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였다. 콜로라도 덴버로 이주한 베네수엘라 이주민 이야기에서는 스페인어를 하는 인턴 기자가 취재를 맡았었다. 또한, 와이오밍의 중국 이주민 역사에 관한 기사에서는 중국계 미국인 기자를 고용했으며, 그 기자는 가족이 중국 식당을 운영하며 자란 경험이 있었고 와이오밍의 한 중국 식당 주인을 인터뷰했다.

Mia는 위사례들을 통해 공통된 경험이 기자로 하여금 기존과는 다른 질문을 가능하게 하고, 주제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Feet in 2 Worlds는 언어적/문화적 맥락, 주제에 대한 친숙함을 저널리즘에 대한 제약이 아닌, 보도의 깊이와 정확성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3) 내부 가이드라인

Feet in 2 Worlds는 이주민 관련 보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내부 매뉴얼과 스타일 가이드를 활용하고 있다. Mia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이주민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다룬다는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도 과정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 매뉴얼은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는 ‘살아 있는 문서’로 기능한다.

특히 Feet in 2 Worlds는 행정부나 공식 기관의 담론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의 보도를 지양하며, 이를 대신하여 ‘인간 중심 언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Mia는 주류 언론이 정부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쓰는 관행을 비판하며, 자사 보도에서는 인간 중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정책이나 단속 중심의 표현보다, 보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간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Feet in 2 Worlds는 미국의 일부 주류 언론이 사용하는 ‘불법 이주민(illegalimmigrant)’이라는 표현을 문제 사례로 제시한다. Mia는 해당 용어가 정치적으로 강한 함의를 지닐 뿐 아니라, ‘인간은 불법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적으로도 부정확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Feet in 2 Worlds는 언어 선택 자체가 보도의 프레임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며, 이러한 기준을 내부 스타일 가이드를 통해 조직 구성원 모두와 공유하

고 있다.

Feet in 2 Worlds는 내부 매뉴얼과 보도 가이드라인을 실제 뉴스룸 운영 과정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Feet in 2 Worlds의 모든 보도는 여러 명의 편집자가 참여하는 다층적인 편집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언어 선택과 프레이밍 원칙이 반복적으로 점검된다. 이러한 편집 구조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보도 생산 과정 속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다만 Mia는 언어와 보도 원칙이 고정된 기준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정치적, 사회적 환경 역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역시 이에 맞춰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Feet in 2 Worlds의 가이드라인은 완결된 규범이라기보다,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며 갱신되는 과정에 있는 문서로 이해된다.

(4) 미국의 이주민 인식

미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Mia는 자신의 답변이 사회과학자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관점임을 전제하였다. 그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노출 경험’을 꼽았다. 즉,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며 일상적으로 접촉할 경우, 이주민을 단일한 이미지가 아닌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동시에 Mia는 허위정보의 확산을 이주민 인식 형성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뉴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소비하지 않으며, SNS와 인플루언서가 정보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선전과 반이주적 수사가 무비판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환경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Mia는 이러한 현상이 확산될수록 이주민이 직접 제작하는 저널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미 신뢰를 확보한 언론은 허위정보를 교정하고, 왜곡된 담론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들이 이주민 관련 보도와 미디어 프레이밍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Mia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나 저널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자체가 하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즉, 보도의 결과물만 소비할 뿐, 그 이면의 제작 과정이나 선택의 논리를 인식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5) 한국 언론을 위한 제언

향후 한국 언론을 위한 제언에 대해 Mia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 지점을 제시한다. 첫째, 반드시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 그들이 어떠한 보도를 원하고, 어떤 목소리가 빠져 있다고 느끼는지 인지해야 한다. 둘째, 이주를 정책이나 법으로만 다루지 않아야 한다. Feet in 2 Worlds는 노동, 기후 변화, 예술과 문화 등 다각적인 주제들을 이주민의 관점에서 다루며, 이러한 접근이 이주민의 삶을 더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6) 결론

Mia는 인터뷰 이후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인 Brooklyn을 소개해주었다. Brooklyn은 역사적으로 이민자의 정착과 이민자 공동체의 형성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도시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Mia가 소개한 Sunset Park는 외국 태생 주민의 비율이 약 40%에 달하고, 라틴계 및 아시아계 등 다양한 민족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지역이다.

결국 Feet in 2 Worlds가 수행하는 교육·보도 활동과 조직 운영 방식은 이주민의 목소리를 보도의 중심에 두고, 공동체와 언론 사이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목표로 수렴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주민 기자의 정체성과 배경, 경험 등을 보도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언어 선택과 취재 윤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하는 이들의 접근은 이주민 보도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② Documented

(1) 기관 설명

Documented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위해 설립된 뉴스룸이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이티 크리올어의 4가지 언어로 보도를 하고 있다. Documented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동시에 중국계 커뮤니티, 페루 커뮤니티, 스페인어 사용자 등 각각의 이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맞춰 콘텐츠를 배포한다. 이들의 보도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이주민들이 뉴욕에서의 삶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이드, 기사, 실용적인 정보 중심의 스토리를 제작한다.

Max는 Documented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으로, 탐사 보도와 특별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Max의 팀은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책임성 중심의 보도를 담당하며, 법적 리스크가 크거나 보다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Ethar는 뉴스룸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민 및 노동 분야의 기자들과 세계 언어별 보도 팀을 관리하고 있다. Ethar의 팀은 기사, 가이드, 뉴스레터, 번역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보도를 제작한다.

(2) 내부 원칙

Ethar는 Documented의 핵심 원칙을 ‘쓸 수 있는 뉴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ocumented는 소규모 뉴스룸이기에 자원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독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 뉴스가 그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판단한다.

용어 선택 원칙에 대해 Max는 이민자(immigrant), 이주민(migrant), 난민(refugee),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와 같은 용어들이 매우 정치적이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20년 전에는 ‘불법 이민자(illegalimmigrant)’라는 표현이 흔히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공동체의 문제 제기를 통해 ‘미등록(undocumented)’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저널리스트로서 Documented는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가치와 공동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뉴욕에 온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주민(migrant)’이라고 불렀지만, 법적으로는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이었다. 주류 언론은 이를 ‘이주민 위기(migrant crisis)’라고 불렀지만, 이는 이주민 그 자체가 위기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위험이 존재했다. 또 다른 예시로 ‘유입(influx)’이라는 표현은 침략이나 해충을 연상시키며, 극우 담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이다. 이에 따라 Documented는 이러한 언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실수하면 수정하며, 변화하는 언어에 맞춰 계속 업데이트한다.

사진 및 영상 선택원칙에 대해 Documented는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둔다고 말했다. 촬영에 대한 동의, 미성년자 보호, 신원 노출 위험을 적절히 고려하여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다. Documented는 최근 몇 년간 사진과 영상 활용을 늘리는 과정에서 시각적 재현에 대해 더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국가 출신의 이야기에 다른 국가 출신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맥락을 무시한 스톡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며, 가능한 한 실제 인물과 삶을 반영하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Documented는 폭력이나 고통만이 아니라, 음식, 일상, 문화의 아름다움 등 '정상적인 삶'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명 보도 원칙에 대해 Documented는 기자와 편집자가 사안별로 논의하며 결정하고, 출처 보호와 저널리즘의 신뢰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 특히 이주민의 경우, 실명 공개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안전을 포함한 새로운 기준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Ethar는 원칙적으로 언론은 출처를 밝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예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3) 미국의 이주민 보도

미국 미디어에서 이주민이 비춰지는 방식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Max는 묻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Ethar는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읽는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미디어가 파편화되어 있고, 버블(bubbles), 즉 사람들이 기존의 가치관을 더욱 강화하는 콘텐츠만 접하게 하는 구조와 알고리즘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이주민 보도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는 미디어를 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떠한 미디어를 수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Ethar는 이러한 보도 환경이 정치적 담론과 결합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권력 구조 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사, 즉 대통령 및 행정부 차원의 메시지가 보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민/추방을 핵심 의제로 삼으면 그에 맞춰 더욱 부정적인 보도와 정책 정당화에 정렬된 보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생기고, 그것이 허위정보를 강화시킨다고 데이터가 왜곡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빙킹(debunking)이 많이 필요해진다고 덧붙였다.

(4) 디지털 리터러시

Documented는 현재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도 지역 커뮤니티에 직접 들어가 교육 세션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핵심 내용은 AI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 중 사실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즉 맥락에 따라 사실과 허구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조작된 영상이나 가짜 영상을 만드는 일이 누구에게나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Max는 ICE 단속이나 경찰의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촬영하는 실제 기록 문화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회수와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조작된 장면이 함께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이것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시민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상들은 점점 더 정교해질 것이고, 실제 벌어지는 일들과 나란히 존재할 때 사람들이 현실 감각 자체를 잃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포기하거나, 행정부가 온라인에 떠도는 가짜 정보에 근거하여 정책 결정을 내리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Documented는 오프라인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여 어떻게 정보를 수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허위정보와 관련해 Ethar는 새 행정부의 출범 직후 TikTok 플랫폼에서 몇 달 간 ICE 관련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검색을 해 본 결과, 관련 영상 게시물이 약 90%까지 급증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악의적인 행위자가 아닌 선의에서 공유한 콘텐츠였다는 점이 더욱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ocumented는 특히 언어와 문해력 문제를 동시에 겪는 고령 이주민을 대상으로 잡지 형태의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는 실험을 진행해왔다. Max는 이가 사람들이 얻는 정보의 출처지가 어디인지, 그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도록 돕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5)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

마지막으로 Documented는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에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가정 우선적으로는 ‘사람 우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적이나 집단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출신의 사람’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언어 선택은 반이주 담론이 사람들을 집단화하고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 유해한 서사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번째는 ‘찬반 균형’에 대한 문제이다. Max는 이주민 문제를 다룰 때 ‘친이주 인사’와 ‘반이주 인사’를 단순히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이주 담론이 종종 악의적이고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주장이기 때문인데, Max는 이주에 비판적인 사람들과 그 이유를 이해하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미국 언론에서 흔히 보이는 것처럼 비당파적 연구기관 전문가와 극우 성향 인사를 동등한 의견처럼 취급하는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는 독자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독자의 사전 지식 수준, 맥락 설명의 필요성,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네번째로, 데이터 사용을 중요시해야 한다. Documented는 ‘범죄가 늘었다’, ‘치안이 나빠졌다’ 등의 수사가 강하게 존재할 때, 단순히 정치인의 발언을 전달하지 않고 데이터로 이를 검증하고 맥락을 제공한다.

다섯번째는 공개범위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정책, 미성년자의 사진 사용, 신분/이력/출신지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한다. 여섯번째로, 해당 콘텐츠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보 제공, 인식 변화, 디빙킹 등 어떠한 목적인지에 따라 보도의 방식과 성공 기준이 달라진다. Documented는 ‘이주민이 경제에 해롭다’는 수사에 대응하여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사를 제작하였는데, 이때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는지’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원칙과 함께 국가별 특수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각 국가에는 고유한 이주 이슈와 사회적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뢰받는 전문가 출처와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Documented는 이주 보도가 복잡하고 섬세하지만, 국경과 이동이 일상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를 연구하고 보도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6) 결론

결론적으로 Documented는 다언어 보도와 플랫폼 맞춤형 배포를 통해 이주민의 정보 접근 환경에 맞춰 콘텐츠를 설계하고, ‘사용 가능한 뉴스’를 원칙으로 보도가 이주민의 일상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내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이주민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는 보도를 지향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자료 제작을 통해 저널리즘의 역할을 정보 전달을 넘어 역량 강화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Documented와의 인터뷰는 이주민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실제 저널리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어떤 효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주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침들을 얻을 수 있었다.

③ 국제 개발 분야 국제기구

(1) 기관 설명

국제 개발 분야 국제기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주 문제가 인권이나 사회 통합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 관점을 포함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기관은 요청에 따라 기관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2) 한국의 이주 정책

인터뷰이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PS)를 사례로 들며, 해당 제도가 국제적으로 비교적 잘 설계된 노동 이주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부 주도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중개 브로커를 최소화하고, 이주 노동자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점, 그리고 사회보험과 노동 조건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점이 긍정적 요소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정책이 이주민을 ‘노동력’으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하는 점이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이는 이주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영역임을 강조하였다.

(3) 국제사회의 이주 정책

인터뷰이는 중동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규모 이주 노동에 의존하는 국가들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제도적으로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대형 국제 행사나 개발 프로젝트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의 산업 안전과 노동 조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경제적 효율을 앞세운 이주 정책이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노동 이동을 불가피한 글로벌 흐름으로 인정하되, 노동권과 인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언급된 글로벌 스킬스 파트너십(Global Skills Partnership)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노동 이동의 경제적 가치와 인간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려는 시도로 설명되었다.

(4) 언론의 이주민 보도

인터뷰이에서는 합법/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에게는 존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주민이 어떤 경로로 국가에 도착했는지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인터뷰이는 현실적으로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언론이나 정책 담론에서 ‘인도주의’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접근 역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주민이 사회보장 혜택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오히려 반이주 정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기여와 인간적 권리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설명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5)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 제작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인터뷰이는,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 모두 위험하다고 평가하였다. 범죄나 일탈 사례가 과도하게 부각될 경우, 다수의 긍정적 효과와 구조적 맥락이 쉽게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이는 언론이 이주 문제를 다룰 때 경제적 효과, 제도의 성과, 동시에 존재하는 위험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는 형평성 있는 보도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단발성 사건 보도보다는, 다큐멘터리나 데이터 기반 보도를 통해 이주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설명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6) 결론

국제 개발 분야 국제기구와의 인터뷰는 이주 문제를 단순히 인권이나 사회 통합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경제 구조와 정책 설계의 관점에서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주민을 노동력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이주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균형 잡힌 담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데 있어, 인도주의적 접근과 경제적 맥락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시사하며, 언론이 이주 문제를 보다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한다.

④ 워싱턴 D.C. 소재의 한 사립대학

(1) 기관 설명

워싱턴D.C. 소재의 한 사립대학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주 문제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이론적 분석의 관점으로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기관은 요청에 따라 기관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본 인터뷰에는 복수의 연구자(총3인)가 참여하였으며, 본고에서는 개별 발언자를 구분하지 않고 인터뷰 전체에서 도출된 주요 논의와 공통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미국 이주민 보도 현황

인터뷰이는 미국 이주민 보도가 매체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답했다. 전통적인 매체인지, 뉴미디어인지 또는 매체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주민을 묘사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문제는 특정 유형의 매체가 특정 성향의 독자층에 의해 소비된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NPR과 같은 매체를 주로 소비하고,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은 Fox News를 주로 소비한다. 따라서 이주 문제에 대한

보도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며, 하나의 방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는 동시에 미디어 소비의 분절화가 인식의 양극화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조명한다.

(3) 이주민 아동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주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동안 본 연구는 단순히 ‘이주민’이라는 집단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해왔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주민 집단 내부에서도 아동, 미성년자, 여성 등 복수의 사회적 소수자성이 중첩되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이주 정책의 효과와 부담이 이주민 집단 전체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특히 아동과 같은 취약 집단에게는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 권리와 보호문제의 관점에서, 현재 미국의 상황은 아동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동의 8% 이상이 서류 미비 이주민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단속과 가족 분리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경에서 가족 분리가 발생했을 때는 큰 사회적 파장이 있었고, 약 5,000명의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아직도 가족과 재결합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더 광범위한 규모의 가족 분리가 국경이 아닌 지역사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추적이 더 어려워졌으며, 정부는 분리된 아동의 수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거나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 역시 해당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인터뷰이는 아동과 트라우마를 다룰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동을 다루는 보도에서는 이들이 겪는 고통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아이들을 단순한 피해자로만 묘사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이는 아동을 오직 고통받는 존재, 즉 피해자로만 고정된 이미지로 재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 스스로가 보여주는 회복력과 대응 역시 함께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이는 트라우마와 저널리즘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을 강조하며 사례를 제시하였다. 컬럼비아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산하의 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는

아동과 트라우마를 다룰 때 언론이 따라야 할 원칙과 주의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아동을 대상화하거나 고통을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공익적 보도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언론에는 아동 권리와 관련한 국제법과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인터뷰이는 어떤 보호 장치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를 아동 권리 협약과 같은 국제 기준, 미국 내에서 적용되는 법적 보호 체계를 함께 설명할 때, 시민들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문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이주 보도는 단순한 동정이나 충격을 환기하는 수준에 머무르기보다, 보다 구조적인 맥락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아동이 겪는 피해를 가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피해가 발생한 배경과 제도적 보호 체계의 작동 실패, 나아가 가능한 대안과 실천의 방향을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보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은 아동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고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주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책임과 정책적 논의를 촉발하는 담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주민의 경제적 필요성

다음으로, 인터뷰이는 언론이 어떻게 이주민을 비취야 하는지에 대해, 현재 이주 담론에서 빠져 있는 핵심 요소가 ‘경제적 필요성’임을 제시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주에 대한 논의는 주로 방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주민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인터뷰이는 ‘사회가 실제로 이주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그들을 돕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먼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 고령화와 더 나아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고소득 국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중국과 같은 중소득 국가들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해당 문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역은 아프리카 일부를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인터뷰이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 전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설령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매우 공격적인 가족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실제 노동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30년, 40년 이상의 시

간이 소요된다. 즉, 출산 정책은 장기적 대응책일 수는 있지만, 당장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시차를 메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주민 것이다.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문제 중 하나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연금 제도는 부과 방식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의 기여금이 은퇴한 세대의 연금을 지탱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 인구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 구조 자체가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즉,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지급 가능한 연금의 규모가 동시에 축소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돌봄 노동이다.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의료 서비스와 장기 요양,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노동의 상당 부분을 이주민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요양 시설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지만, 그러한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이주민 비중이 높다. 다시 말해, 이주민은 단순히 노동시장의 주변부 인력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과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규모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민의 유입은 단순히 인구의 수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뷰이는 이러한 논의가 고숙련 이주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 논의를 고급 기술 인력이나 전문직 중심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다수의 직업은 저숙련 노동 영역에 속해 있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간병, 서비스업, 필수 노동 영역 등은 자동화로 대체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다. 인터뷰이는 이 영역에서 이주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주를 둘러싼 담론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이주민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구조적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선택적 존재가 아니라, 점점 더 불가피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이주민의 주체성(agency)와 개인 서사

이어서 이주민을 다루는 언론 보도에서 이주민의 ‘주체성(agency)’이 충분히

조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의 이주 담론은 이주민을 주로 피해자이거나 보호의 대상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접근은 이주민이 지닌 선택과 결단, 적응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다는 한계를 지닌다. 인터뷰이는 이주 경험이 트라우마와 위험을 동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매우 높은 수준의 능동성과 회복력을 요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혼자 국경을 넘는 미성년 이주 아동의 사례는 이주민의 주체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어린 나이에 낯선 국가로 이동하여 새로운 언어와 제도, 사회적 규범 속에서 살아남는 경험은 단순히 수동적인 피해의 결과로만 설명될 수 없다. 인터뷰이는 이러한 아동들이 극도로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상황에 대응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주 아동을 일방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터뷰이에서는 이주민 개인뿐 아니라, 이주민을 둘러싼 공동체의 역할과 상호작용 역시 충분히 조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언론은 종종 이주를 갈등이나 위기의 맥락에서만 다루지만, 실제로는 이주민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주민 공동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하는 관계망과 상호 의존성은, 이주가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사는 보도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언어 사용 역시 이주민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지적되었다. 인터뷰이는 언론에서 여전히 ‘불법 이주민(illegalimmigrant)’이나 ‘서류 미비자’와 같은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용어가 이주민을 법과 질서의 바깥에 있는 존재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망명 절차를 진행 중인 이주민은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지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이주민을 비합법적 존재로 단순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인터뷰이는 이주민 보도가 동정이나 연민에만 머무를 경우, 오히려 이주민을 객체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주민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이주민을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대상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재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다.

결국 이주민의 주체성을 중심에 두는 보도는, 이주를 일시적인 위기나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이주가 사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과정임을 이해하게 한다. 이는 앞서 논의된 경제적 필요성의 맥락과도 맞닿아 있으며, 이주민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행위자로 재위치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 시간의 관점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는 이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주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단기적 조정 비용과 장기적 통합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이는 이러한 단기적 비용만을 근거로 이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와 경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에 점차 적응하며, 제도와 시장 역시 이에 맞추어 재구성된다. 즉, 이주는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흡수되고 조정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뷰에서는 이주민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여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주민 1세대의 경우 언어 장벽, 제도적 제약,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완전한 통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이주민 집단뿐 아니라, 과거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탈리아계, 동유럽계, 중국계 이주민 집단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 현상이다. 다시 말해, 이주 초기의 어려움은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과정이라는 점이다.

반면, 이주민 부모를 둔 2세대의 경우 교육 성취, 노동시장 참여, 소득 수준, 사회적 이동성 등 다양한 지표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주민 2세대가 이주 배경이 없는 다수 집단보다도 더 높은 성취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이주가 장기적으로 사회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뷰이는 이러한 세대 간 효과가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주민 자녀들이 보여주는 높은 교육적·경제적 성과는 기존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교육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가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이주를 둘러싼 담론은 단기적인 비용이나 초기 혼란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 통합과 세대 간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시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인터뷰이는 이주를 위기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구조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장기적 관점이 현재의 언론 보도와 정책 논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6) 결론

워싱턴D.C. 소재의 사립대학과의 인터뷰는 이주 문제를 단일한 정책 이슈나 특정 집단의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미디어 구조, 아동 권리, 경제적 필요성, 주체성, 그리고 시간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이주 담론은 매체 환경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며, 그 과정에서 이주민 집단 내부의 취약한 하위 집단, 특히 아동의 경험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이주민을 윤리적·인도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재현하는 방식은 이주의 경제적 필요성과 이주민의 주체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주를 단기적 비용이나 위기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보다, 세대 간 변화와 장기적 통합 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주민 보도가 동정이나 위협 프레임에 머무르지 않고, 이주가 사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해 온 구조적 과정임을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데 있어, 프레임의 균형성, 언어 선택의 책임성, 그리고 시간이나 구조의 맥락을 함께 제시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⑤ Jesuit Refugee Service

(1) 기관 설명

Jesuit Refugee Service(이하 JRS)는 베트남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난민 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55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활동하며 지원한다. 대신 결정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닌 난민들이 스스로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Bridget은 JRS의 미국 지부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아웃리치를 담당한다. 미국 지부는 원래 전 세계 JRS 활동을 위한 모금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도 미국 지부는 전 세계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어로 ‘당신과 함께 걷는다’는 뜻의 Contigo라는 이름을 가진 해당 프로그램은 JRS 멕시코와 양국이 협력하여 운영된다. 텍사스 엘파소 지역에서 미국 입국 후 보호소에 머무르거나, 이동 허가를 받아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정착하려는 이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들을 지원한다. JRS는 이들에게 정착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연결망과 소규모 자원들을 제공하며,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이주민 인식

JRS는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이주민의 삶과 외부 인식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상당수의 국가들 중에서도 ‘글로벌 노스’ 국가들이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편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거나, 일반 시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얻기 위해 온다는 인식이 존재하는데,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간극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Bridget은 난민들이 겪어온 일들과, 난민 재정착 제도나 망명 제도가 생겨난 이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들은 수백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낸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것인데, 세대가 교체되면서 사람들이 제도와 시스템의 존재 이유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3) 이주민 보도

Bridget은 언론 보도가 이주민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집단의 이야기가 언론에 집중 조명될 경우, 실제로 큰 지원의 물결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에는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시기가 있었고, 2022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대규모 관심과 지원이 이어진 바가 있다. 이런 언론의 관심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 미니아폴리스에서는 한 지역 사업체가 ‘우크라이나 난민 11명을 고용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언론 보도는 특정 집단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방식의 보도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언론 보도는 특정 시점에 특정 집단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관심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Bridget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을 느끼고, 너무 오래 도와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Bridget은 사람들의 관심에 인종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며, 유럽 출신 난민들, 외모나 문화가 비슷한 난민들을 돕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문화나 출신 지역, 종교 등이 크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JRS는 언론 보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출발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북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나 그리스로 향했던 사례가 있었고, 현재에도 중남미 지역에서는 파나마 다리엔 갭처럼 도보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을 아이들과 함께 통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JRS는 이러한 선택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심각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출발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절박한 출발 조건이 언론 보도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연결지어 Bridget은 난민이나 이주민이 문제를 저질러서 떠났고, 이 때문에 범죄나 마약과 같은 문제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언론에서 고정되어 보도된다고 답했다. 난민이나 이주민 중에서도 범죄자가 존재하지만, 이 사실은 모든 집단에 해당하며, 통계적으로는 오히려 이주민의 범죄율이 미국 태생 시민보다 낮다. Bridget은 이 문제를 선정적으로 과장하지 않는 동시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부정해서도 안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4)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

JRS는 책임 있는 이주민 보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에 대해 설

명했다. 첫째, 이주민(migrants), 난민(refugees), 망명 신청자(asylees)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난민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검증 절차가 매우 엄격한데, 최근 미네소타주 소말리아 커뮤니티를 둘러싼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 절차에 대한 보도가 조금씩 등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상상을 하게 되어 난민들이 아무 절차 없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과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 Bridget은 언론이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난민 심사와 검증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Bridget은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의 생명이나 자녀, 배우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합법적으로 이민을 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대에는 이민을 제한하는 법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이민 과정은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훨씬 간단했는데,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는 보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Bridget은 이에 따라 언론이 단기적인 뉴스 보도를 넘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심층적인 보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위주의 보도와 이야기 위주의 보도 사이의 균형점에 대해 Bridget은 사실과 수치, 인간적인 이야기를 함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과 수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를 반드시 인간의 이야기로 전달할 책임 역시 존재한다. 대중들이 단순히 ‘숫자가 크다’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숫자 중 하나가 되기까지 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가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숫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만을 나열할 경우 대중들이 쉽게 압도되거나 관심을 잃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5) 난민 인식의 지향점

마지막으로 JRS는 사람들이 난민을 바라볼 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ridget은 상황을 보며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내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단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태도가 난민을 바라보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6) 결론

결론적으로 JRS와의 인터뷰는 언론 보도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단기적인 지원의 차원을 넘어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거시적으로 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⑥ 추가 인터뷰

(1) 실제 이주민 대상 인터뷰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출신 이주민(회계사)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언론의 이민자 보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과 실제 삶의 경험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인터뷰이는 2018년 한국에서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계기로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위계적 조직 문화보다는 개인의 업무 수행이 중시되는 환경, 그리고 인맥보다 실력이 중시되는 구조가 이주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이는 Big Four 회계법인 중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기관명과 성명은 익명으로 표기하였다.

- 미국 언론의 특성

인터뷰이에 따르면, 뉴욕은 이민자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로, 지역 사회 전반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비판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뉴욕을 기반으로 한 NBC 등의 주요 언론 보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논조가 두드러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주별 권한이 강해, 연방 차원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뉴욕과 같은 대도시는 연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 미국 언론의 이민자 보도

인터뷰이는 미국 언론이 이민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이민자 보도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언론에 주로 등장하는 이민자 이미지는 멕시코나 중남미 출신 이주민이 대부분이며, 이들 역시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인터뷰이 자신을 포함한 IT·회계·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이주민의 사례는 통계 수치로만 언급될 뿐, 실제 삶의 모습이나 서사는 거의 조명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언론은 ‘이민자 전체’를 다룬다고 말하면서도, 시각적·서사적으로는 흑인이나 중남미 출신 저임금 노동자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도의 특성은 화이트칼라 종사자인 인터뷰이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전문직 종사자이며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주로 다루지는 ‘불법 이민자’나 ‘난민’ 이미지와 스스로를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레스토랑 청소나 단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다수의 남미 출신 이주민들이 비공식 노동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세금과 제도권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미국 언론에서 이민자를 긍정적이거나 입체적으로 다룬 보도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인터뷰이는 “열 개 중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적다”고 답했다. 동시에 이민자를 단순히 동정의 대상으로만 그리는 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접근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인터뷰이는 언론 보도가 이민자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았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 변화는 정권 교체와 정치적 환경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인식이다.

다만 주별로 정치 성향과 인구 구성이 크게 다르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뉴욕은 다양한 인종이 혼합된 민주당 성향 지역인 반면, 텍사스나 미시간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백인 중심의 공화당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 결과 지도를 예로 들며, 특정 주의 정치적 색깔과 이민자 비율 사이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 이주민으로서의 장벽

회계사로서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며 가장 큰 장벽은 언어보다는 한국과 전혀 다른 세법·제도 시스템이었다고 답했다. 또한 영주권 취득 이전에는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력 상승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으며, 일정 단계 이상의 직무로 이동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직장 내에서 차별을 느낀 경험은 거의 없었으며, 이는 뉴욕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이민자 비율이 높은 노동 시장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 결론

이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언론의 이민자 보도가 특정 집단의 이미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문직·합법 체류 이주민의 일상은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주민 보도는 모든 이주민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신분·직업·지역에 따라 체감되는 영향 역시 크게 달라진다.

이는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을 설계할 때, ‘이주민’을 단일한 범주로 상정하기보다 이주민 내에서도 다양한 집단이 혼재하기에 다층적 경험과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워싱턴 D.C. 소재의 한 사립대학 - 서면 인터뷰

워싱턴 D.C. 소재의 한 사립대학과의 인터뷰 이후, 심화 질문에 대해 두 명의 인터뷰이가 서면 응답을 제공하였다.

-미디어 편향 인식과 정보 효과

인터뷰이는 전통 언론과 소셜미디어 모두에서 이념적 에코 챔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용자들의 기존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다만 비교적 진보 성향의 매체일수록 학술 연구 결과와 실증적 데이터를 보도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연구자는 대중의 인식 변화에 있어 객관적 경제 데이터보다 개인 서사와 시각 자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Alesina, Miano, Stantcheva(2023)의 실험 연구를 언급하며,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삶을 담은 영상을 본 집단에서 태도 변화와 행동 변화(예: 기부)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해당 연구의 한계도 지적했다. 제공된 정보가 지나치게 일반적일 경우, 개인의 실제 삶과 연결되지 않아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를 앞둔 개인에게 “이민이 은퇴 연령을 늦추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 맥락의 정보는 훨씬 높은 수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민 보도에서 긍정과 부정, 비용과 편익, 그리고 정책적 선택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기여 중심의 서사와 보도 원칙

인터뷰이는 이주민 삶을 다룰 때, 서사가 단순한 ‘불쌍한 이야기’나 인권 침해 사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주민이 경제적으로 무엇을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 기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더욱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는 특히 언론이 대중에게 전달해야 할 핵심 정보로 노동시장 효과, 재정 효과, 물가 효과, 혁신 효과를 꼽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민은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주 잉여(migration surplus)’를 창출하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집단이 있다면 이는 주로 기존에 유입된 이주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국인과 이주민이 종사하는 직종이 구조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향후 이민 보도에서 가장 기대하는 변화로 그는, 이민을 “방어해야 할 부담”이나 “숨겨야 할 문제”로 다루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은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자산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을 위한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의 핵심 원칙으로, 그는 학술 연구에 기반한 엄밀한 사실 검증을 제시했다. 감정적 주장이나 단편적 사례가 아닌, 검증된 실증 연구를 토대로 한 보도가 이주 문제를 보다 구조적이고 책임감 있게 다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4. 탐사의 결과

1)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①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이란?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은 언론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실제 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이민자 보도에서 프레이밍으로 인한 편견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가능하게 한다.

② 가이드라인의 성격 및 교육적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대학 수업,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실천 중심의 지침서이다. 주요 대상은 언론·미디어 관련 전공 대학생 및 교육자, 그리고 예비 언론인과 학생 기자이다.

본 결과물의 핵심적 목표는 학습자들이 이주민·난민 보도를 바라보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도록 돕는 데 있다. 단순히 표준화된 보도 원칙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 언론의 실제 보도 사례를 분석하며 문제적 프레이밍이 대중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스스로 성찰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구체적인 프레이밍 전환 연습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끌어낼 수 있는 참여형 교육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③ 제작 근거 및 방법론적 기초

가이드라인의 모든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데이터를 근거로 설계되었다.

- 기사 표본 분석: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주요 언론사의 보도 60건을 분석했다.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이 반복해온 프레이밍의 패턴과 한계를 도출했다.
- 미국 사례와의 비교 및 인터뷰: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Documented, Feet in 2 Worlds, Jesuit Refugee Service

등 현지 언론 기구와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주민 보도의 구조적 특징과 윤리적 지침을 확인했으며, 이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여 가이드라인에 녹여냈다.

④ 가이드라인의 구조: 4단계 프로세스 (4-Step Process)

학습자가 보도 원칙을 단계적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구조를 취한다.

- STEP 1. 사례 살펴보기: 실제 국내 보도 관행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가상의 문제 기사를 제시하여 문제의식을 환기한다.
- STEP 2. 문제점 파악하기: 해당 사례가 이주민을 소외시키거나 왜곡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STEP 3. 수정 가이드(Refinement Guide): 부적절한 표현을 대체할 권장 언어와 그 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 STEP 4. 연습 문제(Practical Application): 문장 교정 및 시나리오 진단 실습을 통해 학습자가 보도 원칙을 실제 기사 작성 과정에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한다.

⑤ 가이드라인 원칙 요약

주제 1. 용어 선택 및 표현의 원칙 (Language & Terminology)

- 사람 우선 언어를 사용한다.
- 의미에 따른 용어를 정확히 구분한다.
- 국적 및 체류 정보 표기는 필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비인간적인 비유를 지양한다.
- 혐오 표현은 재현하지 않고 비판적 맥락에만 둔다.

주제 2. 맥락과 관점의 원칙 (Context & Perspectives)

- 개인의 위법 행위를 구조적 맥락과 연결한다.
- 해결책을 단속과 처벌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주제 3. 발화 주체와 당사자 재현의 원칙 (Subjectivity & Voices)

-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이주민을 피해자·가해자를 넘어 ‘사회적 주체’로 다룬다.

주제 4. 취재 윤리와 안전의 원칙 (Ethics & Safety)

- 비추출적 저널리즘(Non-extractive)을 지향한다.
- 취재 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거절할 권리를 보장한다.
- 익명성 단계 세분화 및 디지털 보호를 실천한다.

주제 5. 인용 및 통계의 원칙 (Citations & Statistics)

- 발화 주체의 구성을 다각화하여 균형을 점검한다.
- ‘전문가’를 익명화하지 않고 소속과 근거를 명시한다.
- 통계와 팩트체크 결과를 전면에 배치한다.
- 통계는 전체 해석과 한계 및 의미를 함께 제시한다.

주제 6. 시각 자료 활용의 원칙 (Visual Media)

- 시각 자료가 유도하는 감정과 고정관념을 점검한다.
- 안전한 시각 언어를 활용한다.

⑥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한국 언론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

Ewha Womans University
2025 Global Frontier + Winter Program



2026 JANUARY

Team ReFrame

목차

들어가며	p.3
주제 01 용어 선택 및 표현의 원칙	p.5
주제 02 맥락과 관점의 원칙	p.10
주제 03 발화 주체와 당사자 재현의 원칙	p.15
주제 04 취재 윤리와 안전의 원칙	p.20
주제 05 인용 및 통계의 원칙	p.25
주제 06 시각 자료 활용의 원칙	p.30
가이드라인 요약	p.33

들어가며,

제작 배경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민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나라다. 이제 이주민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일상에서 직접 마주하기보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험한다. 즉, 미디어가 이주민의 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언론은 이들을 주로 '불법체류', '범죄', '사회적 부담'이라는 부정적 틀 안에 가두어 비추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보도 관행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 아동과 같이 꼭 필요한 사회적 논의들을 시야 밖으로 밀어낸다. 이주민 문제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시각과 책임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다.

목적 및 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 수업,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언론과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 교육자, 예비 언론인, 학생 기자들이 이주민 보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지침서의 핵심은 학습자들이 이주민·난민 보도를 바라보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현시점 언론의 실제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문제적 프레임이 대중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고민하게 한다. 구체적인 프레임 전환 연습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토론과 성찰을 끌어낼 수 있는 자료가 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은 외국 사례의 단순 벤치마킹을 넘어, 한국 언론 지형과 사회적 맥락에 뿌리를 둔 '한국형 이주민 커뮤니케이션 기준'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언론이 이주민을 단순한 '외부인'으로 타자화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공론장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들어가며,

제작 과정

가이드라인의 모든 원칙은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를 근거로 설계했다.

- 기사 **표본 분석**: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주요 언론사의 보도 60건을 분석했다.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언론이 반복해온 프레임의 패턴과 한계를 도출했다.

- **미국 사례와의 비교 및 인터뷰**: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Documented, Feet in 2 Worlds, Jesuit Refugee Service 등 현지 언론 기구와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주민 보도의 구조적 특징과 윤리적 지침을 확인했으며, 이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여 가이드라인에 녹여냈다.

4단계 구성

학습자가 보도 원칙을 단계적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구조를 취한다.

- **STEP 1. 사례 살펴보기:**
실제 보도 관행을 반영해 재구성한 가상 기사로 문제적 상황을 직시한다.
- **STEP 2. 문제점 파악하기:**
해당 사례가 이주민을 어떻게 소외시키고 왜곡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STEP 3. 수정 가이드:**
부적절한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권장 방향과 그 뒤에 숨은 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 **STEP 4. 연습 문제:**
문장 교정 및 시나리오 진단을 통해 보도 원칙을 직접 연습해 본다.

01

용어 선택 및 표현의 원칙

(Language & Terminology)


- 사람 우선 언어를 사용한다.
- 의미에 따른 용어를 정확히 구분한다.
- 국적 및 체류 정보 표기는 필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비인간적인 비유를 지양한다.
- 혐오 표현은 재현하지 않고 비판적인 맥락에만 둔다.


주제 01


용어 선택 및 표현의 원칙


(Language & Terminology)


원칙

- 1. 사람 우선 언어를 사용한다.** 

'불법 체류자'와 같은 낙인 용어를 지양하여 인간 자체가 불법일 수 없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미등록 체류자'와 같이 행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2. 의미에 따라 용어를 정확히 구분한다.** 

이주민, 이민자, 난민, 망명 신청자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대중이 용어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기사 내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언론사 내에서도 표현이 혼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3. 국적 및 체류 정보 표기는 필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범죄 성격이나 수사 이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제목이나 기사 초반에) 국적 표기를 지양한다.
- 4. 비인간적인 비유를 지양한다.** 

이주민을 생물학적 위협이나 침략군으로 묘사하는 '유입', '확산', '침투' 등의 단어 사용을 경계한다.
- 5. 혐오 표현은 재현하지 않고 비판적 맥락에만 둔다.** 

혐오 구호를 직접 인용하여 재확산시키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요약·설명 방식으로 최소화한다.

01 용어 선택 및 표현의 원칙

STEP 1 사례 살펴보기

아래의 기사를 읽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보세요.

20YY.MM.DD	NEWSLETTER	OO언론사
------------	------------	-------

외곽지역 '불법체류자' 급증... 주민들 "밤거리 다니기 무섭다."

'최근 수도권 외곽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들의 급격한 유입이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던 이들이 밤이 되면 골목마다 무리 지어 다니는 탓에 주민들은 일상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떼 지어 있으니까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다.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데 단속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달 해당 지역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남성이 취중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체류자 위기가 관리 사각지대를 틈타 전국으로 침투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

(본 사례는 실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보도 관행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기사입니다)

01 용어 선택 및 표현의 원칙

STEP 2 문제점 파악하기

20YY.MM.DD	NEWSLETTER	OO언론사
------------	------------	-------

외곽지역 '불법체류자' 급증... 주민들 "밤거리 다니기 무섭다."

'최근 수도권 외곽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자들의 급격한 유입이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던 이들이 밤이 되면 골목마다 무리 지어 다니는 탓에 주민들은 일상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떼 지어 있으니까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다. 언제 **범죄를 저지르지 모르는데 단속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달 해당 지역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남성이** 취중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체류자 위기**가 관리 사각지대를 틈타 전국으로 **침투**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

(본 사례는 실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보도 관행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기사입니다)

⚠️ 부적절한 낙인:

'인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불법체류자'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상의 존재를 범죄화한다.

⚠️ 비인간적 비유:

사람의 이동을 유입, 침투 등 공격처럼 묘사하여 대상의 인격성을 지운다. 또한 이주민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는 이주민 위기 프레임 사용한다.

⚠️ 혐오 및 차별적 맥락의 직접 인용:

근거 없는 공포와 차별적 발언을 비판 없이 직접 인용하여 혐오를 정당화한다.

⚠️ 불필요한 국적 강조:

'동남아 출신', '베트남 국적' 등을 반복적으로 명시하여 특정 국가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일반화한다.

01 용어 선택 및 표현의 원칙

STEP 3 수정 가이드

수정 전 문구	권장 수정 방향	적용 원칙 및 근거
불법 체류자	미등록 체류자, 서류 미비자	인간 자체를 범죄화하는 불법 낙인을 지우고 행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한다.
유입, 확산, 침투	이동, 증가, 거주	이주민을 생물학적 위협이나 오염원으로 묘사하는 비인간적 비유를 배제한다.
동남아 출신, 베트남 국적	이주민, 외국인	사건 이해에 필수적이지 않은 국적 정보를 삭제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일반화를 방지한다.
혐오 발언 직접	맥락적 요약 및 비판적 언급	혐오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지 않고, 갈등의 원인을 '소통 부족'이나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STEP 4 연습 문제

Q. 다음 보도 문장을 '용어 및 표현의 원칙'을 참고하여 교정해 보세요.

경찰은 어제 새벽 도심 일대에서 구걸 행위를 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5명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으로 불법체류자에 의한 거리 풍기 문란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도움말: 국적 정보의 필수성을 점검해보세요. 사람 우선 언어가 사용되었는지 점검해보세요.

02

맥락과 관점의 원칙

(Context & Perspectives)

- 개인의 위법 행위를 구조적 맥락과 연결한다.
- 해결책을 단속과 처벌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주제 02

맥락과 관점의 원칙

(Context & Perspectives)

원칙

1. 개인의 위법 행위를 구조적 맥락과 연결한다.
사건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및 이주민들이 떠난 배경 (Push factor) 등 해당 상태가 형성된 구조적 원인과 배경을 우선 설명한다.
2. 해결책을 단속과 처벌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보도의 균형을 위해 단속 외에 다양한 대안과 정책적 논의를 함께 제시한다.

02 맥락과 관점의 원칙

STEP 1 사례 살펴보기

아래의 기사를 읽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보세요.

20YY.MM.DD	NEWSLETTER	OO언론사
------------	------------	-------

인력난 속 '무단 이탈' 이주노동자 기승... 현장 관리 비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상태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한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더 높은 시급을 제시하는 건설 현장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계는 어렵게 확보한 인력이 별다른 예고 없이 이탈하면서 조업 차질이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주 동의 없는 근무지 이탈은 명백한 법질서 위반”이라며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단속 인력을 확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손쉽게 암시장에 유입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본 사례는 실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보도 관행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기사입니다)

02 맥락과 관점의 원칙

STEP 2 문제점 파악하기

20YY.MM.DD	NEWSLETTER	OO언론사
인력난 속 '무단 이탈' 이주노동자 기승... 현장 관리 비상		
<p>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상태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한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더 높은 시급을 제시하는 건설 현장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된다.</p> <p>중소기업계는 어렵게 확보한 인력이 별다른 예고 없이 이탈하면서 조업 차질이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주 동의 없는 근무지 이탈은 명백한 법질서 위반”이라며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단속 인력을 확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p>전문가들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손쉽게 암시장에 유입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본 사례는 실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보도 관행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기사입니다)

⚠ 구조적 맥락의 삭제 :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이유(임금 체불, 폭언, 열악한 기숙사 등)와 현행 고용허가제상 '사업주 동의 없는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제도적 제약이 미등록 상태를 양산한다는 점을 누락한다.

⚠ 문제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

문제를 시스템의 미비가 아닌 이주노동자의 법질서 준수 의지 부족으로 규정한다.

⚠ 단편적 해결책 제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 보다는 '단속 확충', '규정 강화'라는 행정 편의적 해결책만 강조한다.

⚠ 떠난 배경(Push Factor) 무시:

이주민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왜 위험한 미등록 상태를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서사가 부재한다.

02 맥락과 관점의 원칙

STEP 3 수정 가이드

수정 전 문구	권장 수정 방향	적용 원칙 및 근거
무단 이탈 기승	제도적 제약에 따른 미등록 전환 증가	행정 미비나 제도적 실패를 개인의 일탈로 전가하지 않고 구조적 맥락을 우선 설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인식 개선	이주 정책 사각지대 개선의 측면 추가 제시	사건을 개인의 성격이나 도덕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정책 환경과 제도적 조건을 함께 제시한다.
엄정 대응, 벌칙 강화	근무지 변경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안 추가 제시	보도의 균형을 위해 단속 외에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병행한다.
돈을 위해 법질서 위반	미등록 체류 상태가 형성되는 구조적 배경 설명	자극적 어조 대신 이주노동자가 떠나는 배경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함께 설명한다.

STEP 4 연습 문제

Q. 다음 보도 문장을 '맥락과 관점의 원칙'을 참고하여 교정해 보세요.

최근 도심 일대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구걸을 하거나 노숙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인도적 배려로 체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움말: 난민 신청자들이 왜 자립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왔는지 (예: 난민 신청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취업 권한, 부족한 생계 지원비 등) 구조적 배경을 문장에 담아보세요. 해결책이 단순 단속이나 처벌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보도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03

발화 주체와 당사자 재현의 원칙

(Subjectivity & Voices)



-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이주민을 피해자·가해자를 넘어 '사회적 주체'로 다룬다.

주제 03

발화 주체와 당사자 재현의 원칙

(Subjectivity & Voices)

원칙

1.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이주민을 이야기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 두며, 사건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주체로 재현한다. 직접 발화가 어려울 경우 그 맥락을 명시한다.
2. 이주민을 피해자·가해자를 넘어 '사회적 주체'로 다룬다.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나 위험한 타자가 아닌 노동자, 시민, 권리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드러낸다. 피해자나 가해자로만 소비하지 않고 그들의 '보통의 일상'을 조명한다.

03 발화 주체와 당사자 재현의 원칙

STEP 1 사례 살펴보기

아래의 기사를 읽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보세요.

20YY.MM.DD	NEWSLETTER	OO언론사
------------	------------	-------

매서운 추위 속 비닐하우스에서 떠는 이주노동자들… “도와주세요”

한겨울 한파가 몰아친 가축 사육장 인근 비닐하우스. 얇은 벽면 사이로 칼바람이 스며드는 이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들은 취재진을 보자마자 서툰 한국어로 "추워요", "힘들어요"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인근 종교 단체 관계자는 "가장 낮고 소외된 곳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연민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본 사례는 실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보도 관행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기사입니다)

03 발화 주체와 당사자 재현의 원칙

STEP 2 문제점 파악하기

20YY.MM.DD	NEWSLETTER	OO언론사
------------	------------	-------

매서운 추위 속 비닐하우스에서 떠는 이주노동자들... “도와주세요”

한겨울 한파가 몰아친 가축 사육장 인근 비닐하우스. 얇은 벽면 사이로 칼바람이 스며드는 이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들은 취재진을 보자마자 서툰 한국어로 "추워요", "힘들어요"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인근 종교 단체 관계자는 "가장 낮고 소외된 곳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연민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본 사례는 실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보도 관행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기사입니다)

⚠ 수동적 대상화:

이주민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는 '주체'가 아니라, 오직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기다리는 '불쌍한 피해자'로만 묘사한다. 연민만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보도는 이주민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당사자 목소리의 소외:

당사자는 "추워요" 같은 단편적인 감정 표현만 할 뿐, 실제 그들이 겪는 주거 문제의 핵심이나 정책적 요구사항은 제3자(종교 단체 관계자)의 입을 통해 대리 서술된다.

⚠ 일상의 부재:

이주민을 비극적인 순간의 단면으로만 소비하며 그들의 보통의 일상은 다루지 않는다.

03 발화 주체와 당사자 재현의 원칙

STEP 3 수정 가이드

수정 전 문구	권장 수정 방향	적용 원칙 및 근거
“추워요”, “힘들어요” (감정만 나열)	현행 주거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 등 당사자의 직접 발언	이주민을 사건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주체로 재현한다.
불쌍한 이웃, 온정의 손길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 및 법적 주거 기준 준수	이주민을 동정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다룬다.
제3자(관계자) 위주의 인터뷰	이주민 당사자의 상세 인터뷰 및 서사 중심 구성	이주민을 이야기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 둔다.

STEP 4 연습 문제

Q. 다음 보도 문장을 '주체성과 당사자 재현의 원칙'을 참고하여 교정해 보세요.

한국 생활 3년 차인 난민 신청자 A씨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다. 그는 취재진에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그를 돕겠다는 성금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도움말: A씨를 단순히 도움을 기다리는 '간절한 눈빛의 피해자'로만 그리지 말고, 그가 어떤 시민적 요구를 하고 있는지 주체적인 목소리를 담아보세요. 또한 동정심 유발을 넘어 그가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추가해보세요.

04

취재 윤리와 안전의 원칙

(Ethics & Safety)


- 비추출적 저널리즘(Non-extractive)을 지향한다.
- 취재 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거절할 권리를 보장한다.
- 익명성 단계 세분화 및 디지털 보호를 실천한다.


주제 04


취재 윤리와 안전의 원칙

(Ethics & Safety)

원칙

1. 비추출적 저널리즘(Non-extractive)을 지향한다. 

이주민의 고통스러운 서사만을 추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도가 취재원의 삶에 어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교환'의 관계를 지향한다.
2. 취재 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거절할 권리를 보장한다.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기자가 먼저 설명하고, 취재 과정에서 언제든지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반복해서 고지한다.
3. 익명성 단계 세분화 및 디지털 보호를 실천한다. 

취재원의 위험도에 따라 실명, 가명, 성 제외 등 익명성 단계를 세분화하고, 사진의 위치 정보(EXIF) 제거 등 디지털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04 취재 윤리와 안전의 원칙

STEP 1 사례 살펴보기

아래의 시나리오를 읽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보세요.

사회부 A 기자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B씨를 만났다. 마감 시간이 촉박했던 A 기자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질문지부터 꺼내 들었다. B씨가 머뭇거리자 기자는 “당신 사연이 나가야 사람들의 동정표를 얻어 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며 강하게 설득했다.

인터뷰 도중 B씨가 “기사가 나가면 경찰이 오지 않겠느냐”고 묻자, 기자는 “한국 언론은 그런 거 다 보호해준다. 나만 믿으라”며 녹음을 이어갔다.

보도 후, 기사에는 B씨의 이름이 'B'로만 나갔지만, 그가 일하는 공장 이름과 숙소 근처 공원의 풍경, 그리고 '고향의 아픈 아내를 위해 매달 150만 원을 송금하는 사연'이 상세히 실렸다. 기사를 본 동료들은 단번에 B씨임을 알아챘고, 신분이 탄로 날까 두려워진 B씨는 결국 숙소를 떠나야 했다.

(본 사례는 이주민 취재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소통 방식을 재구성한 시나리오입니다.)

04 취재 윤리와 안전의 원칙

STEP 2 문제점 파악하기

사회부 A 기자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B씨를 만났다. 마감 시간이 촉박했던 A 기자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질문지부터 꺼내 들었다. B씨가 머뭇거리자 기자는 "당신 사연이 나가야 사람들의 동정표를 얻어 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며 강하게 설득했다.

인터뷰 도중 B씨가 "기사가 나가면 경찰이 오지 않겠느냐"고 묻자, 기자는 "한국 언론은 그런 거 다 보호해준다. 나만 믿으라"며 녹음을 이어갔다.

보도 후, 기사에는 B씨의 이름이 'B'로만 나갔지만, 그가 일하는 공장 이름과 숙소 근처 공원의 풍경, 그리고 '고향의 아픈 아내를 위해 매달 150만 원을 송금하는 사연'이 상세히 실렸다. 기사를 본 동료들은 단번에 B씨임을 알아챘고, 신분이 탄로 날까 두려워진 B씨는 결국 숙소를 떠나야 했다.

(본 사례는 이주민 취재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소통 방식을 재구성한 시나리오입니다.)

⚠️ 추출적 저널리즘:

취재원을 '동정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대하며, 기자가 보장할 수 없는 보상(돈을 받아주겠다)을 약속하여 이야기를 '추출'했다.

⚠️ 사전 교육 및 거절권 무시:

취재원이 느낀 실질적 공포(경찰 단속 등)를 "나만 믿으라"는 식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마했다. 보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신체적 리스크를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다.

⚠️ 익명성 보호의 실패 (식별 정보 노출):

단순히 이름을 가리는 것(성 제외)만으로는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보의 조합을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음을 간과했다.

⚠️ 일방적 권력 관계:

취재원의 트라우마나 속도보다 기사의 마감과 생생한 증언을 우선시하여 취재원에게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었다.

04 취재 윤리와 안전의 원칙

STEP 3 수정 가이드

수정 전 행동	권장 행동 방향	적용 원칙 및 근거
"기사 나가면 돈 받을 수 있다"는 약속	기사는 문제를 알릴 뿐, 해결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것 명시	보상을 대가로 이야기를 추출하는 추출적 저널리즘을 지양하고, 비추출적 저널리즘을 실천한다.
"걱정 마라"는 식의 막연한 안심	추방, 재판 영향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상세 고지	취재 전 사전 교육을 통해 취재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름만 가리는 1차원적 익명 처리	지역, 나이, 특수한 사연 등 식별 정보의 단계별 익명화	익명성 단계를 세분화하고, 정보 조합으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게 관리한다.
첫 만남에서 모든 사연을 녹취함	신뢰가 쌓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취재원과 긴 호흡의 저널리즘을 실천한다.

STEP 4 연습 문제

Q. 다음은 이주민 취재 현장에서 기자가 보인 행동입니다. '취재 윤리와 안전의 원칙'을 참고하여 교정해 보세요.

이주노동자 C씨를 취재하던 기자 D씨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C씨가 매일 일하는 식당 주방 안에서 앞치마를 입고 요리하는 모습을 촬영했으며,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도했다.



*도움말: 특정 장소나 직종이 노출되었을 때 이름 없이도 신원이 노출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얼굴 가리기' 이상의 창의적인 익명 보호 전략을 고민해 보세요.

05

인용 및 통계의 원칙

(Citations & Statistics)





- 발화 주체의 구성을 다각화하여 균형을 점검한다.
- '전문가'를 익명화하지 않고 소속과 근거를 명시한다.
- 통계와 팩트체크 결과를 전면에 배치한다.
- 통계는 전체 해석과 한계 및 의미를 함께 제시한다.

주제 05

인용 및 통계의 원칙

(Citations & Statistics)

원칙

- 1. 발화 주체의 구성을 다각화하여 균형을 점검한다.** 
특정 입장만 반복되지 않도록 NGO, 전문가, 당사자 등 출처를 다양화하여 독자의 판단 가능성을 확보한다.
- 2. '전문가'를 익명화하지 않고 소속과 근거를 명시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문성은 기사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므로 소속과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힌다.
- 3. 통계와 팩트체크 결과를 전면에 배치한다.** 
범죄 성격이나 수사 이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제목이나 기사 초반에) 국적 표기를 지양한다.
- 4. 통계는 전체 해석과 한계 및 의미를 함께 제시한다.** 
전체 규모, 비교 기준, 표본의 한계를 함께 설명하여 통계가 문제를 단순화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한다. 또한 딱딱한 수치만으로 독자를 압도하지 말고, 숫자가 의미하는 구체적 서사를 제시한다.

05 인용 및 통계의 원칙

STEP 1 사례 살펴보기

아래의 기사를 읽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보세요.

20YY.MM.DD	NEWSLETTER	OO언론사
------------	------------	-------

‘외국인 범죄’ 5년 새 20% 급증… 도심 곳곳 ‘치안 불안’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건수는 5년 전보다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우범 지역에 대한 순찰을 늘리고 단속을 대폭 강화해 치안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대중들은 이주민 사회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

(본 사례는 실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보도 관행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기사입니다)

05 인용 및 통계의 원칙

STEP 3 수정 가이드

부적절한 활용	권장 활용 방향	적용 원칙 및 근거
수사 기관/치안 위주 인용	NGO, 연구자, 이주민 등 출처 다각화	특정 입장만 반복되지 않도록 발화 주체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판단 가능성을 확보한다.
범죄 건수 20% 급증	인구 대비 범죄율 및 내국인 비교 수치 제시	통계는 반드시 해석의 전제와 비교 기준을 함께 설명하여 수치를 맥락화해야 한다.
전문가 정보 비공개	발언 주체의 소속과 전문 분야를 명확히 명시	출처가 불분명한 전문성은 기사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므로 소속과 이해관계를 밝힌다.
"철저한 관리 시급" 등 결론	데이터 기반의 팩트체크와 서사 결합	감정적 호소보다 정확한 데이터로 선동적 주장을 막되, 숫자가 의미하는 구체적 삶의 이야기를 결합한다.

STEP 4 연습 문제

Q. 다음은 통계와 인용을 활용한 보도 문구입니다. '인용 및 통계의 원칙'을 참고하여 교정해 보세요.

최근 미등록 이주민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이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이민 정책 전문가는 이들에 의한 조세 포탈과 일자리 잠식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도움말: '역대 최대치'라는 수치의 적합성을 고려해보세요. 다양한 발화 주체의 말이 인용되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숫자가 의미하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제시해 보세요.

06

시각 자료 활용의 원칙

(Visual Media)

- 시각 자료가 유도하는 감정과 고정관념을 점검한다.
- 안전한 시각 언어를 활용한다.

STEP 2 문제점 파악하기

20YY.MM.DD	NEWSLETTER	OO언론사
'외국인 범죄' 5년 새 20% 급증... 도심 곳곳 '치안 불안'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건수는 5년 전보다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우범 지역에 대한 순찰을 늘리고 단속을 대폭 강화해 치안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대중들은 이주민 사회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		

(본 사례는 실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보도 관행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기사입니다)

⚠ 발화 주체의 편중:

범죄 현상을 진단하는 데 있어 수사 기관이나 치안 위주의 입장만을 인용하여 문제를 관리와 통제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게 한다.

⚠ 전문가의 익명성 및 편향성:

'한 전문가'라는 모호한 주체 뒤에 숨어 근거 없는 진단을 내림으로써 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한다.

⚠ 통계의 맥락 상실:

전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폭(모수)이나 내국인 대비 범죄율 등 비교 기준 없이 '건수 증가'라는 수치만 강조하여 공포를 조장한다.

⚠ 데이터의 구조화:

숫자가 현상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주제 06

시각 자료 활용의 원칙

(Visual Media)

원칙

1. 시각 자료가 유도하는 감정과 고정관념을 점검한다.
경찰·단속 이미지는 문제를 '치안'으로 고정시킨다. 시각 자료가 기사 내용과 어떤 감정(공포, 위협 등)을 연결하는지 확인한다.
2. 안전한 시각 언어를 활용한다.
얼굴을 직접 노출하는 대신 실루엣, 그림자, 손, 혹은 레이어를 활용한 구도를 통해 취재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인격적인 존엄성을 전달한다.

06 시각 자료 활용의 원칙

부적절한 시각 자료 수정가이드

부적절한 시각화	권장 시각화 방향	적용 원칙 및 근거
단속, 검문, 수갑 등 자극적 이미지	노동, 공동체 활동, 평범한 일상	시각 자료가 유도하는 감정을 점검하고 치안 중심의 고정관념을 탈피한다.
위협적인 앵글과 어두운 배경	눈높이의 평등한 앵글과 밝은 조명	이주민을 '위험한 타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 재현한다
단순 모자이크 및 강압적 현장 사진	실루엣, 그림자, 손 등 인격적 재현	안전을 지키면서도 인격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시각 언어를 활용한다.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과 전시	사전 동의 및 촬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지	사진이 주는 파급력을 설명하고 촬영 방식에 대해 취재원과 소통한다.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 요약

01 용어 선택 및 표현의 원칙 (Language & Terminology)

- 사람 우선 언어를 사용한다.
- 의미에 따른 용어를 정확히 구분한다.
- 국적 및 체류 정보 표기는 필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비인간적인 비유를 지양한다.
- 혐오 표현은 재현하지 않고 비판적인 맥락에만 둔다.

02 맥락과 관점의 원칙 (Context & Perspectives)

- 개인의 위법 행위를 구조적 맥락과 연결한다.
- 해결책을 단속과 처벌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03 발화 주체와 당사자 재현의 원칙 (Subjectivity & Voices)

-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 이주민을 피해자·가해자를 넘어 '사회적 주체'로 다룬다.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 요약

04 취재 윤리와 안전의 원칙 (Ethics & Safety)

- 비추출적 저널리즘(Non-extractive)을 지향한다.
- 취재 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거절할 권리를 보장한다.
- 익명성 단계 세분화 및 디지털 보호를 실천한다.

05 인용 및 통계의 원칙 (Citations & Statistics)

- 발화 주체의 구성을 다각화하여 균형을 점검한다.
- '전문가'를 익명화하지 않고 소속과 근거를 명시한다.
- 통계와 팩트체크 결과를 전면에 배치한다.
- 통계는 전체 해석과 한계 및 의미를 함께 제시한다.

06 시각 자료 활용의 원칙 (Visual Media)

- 시각 자료가 유도하는 감정과 고정관념을 점검한다.
- 안전한 시각 언어를 활용한다.

About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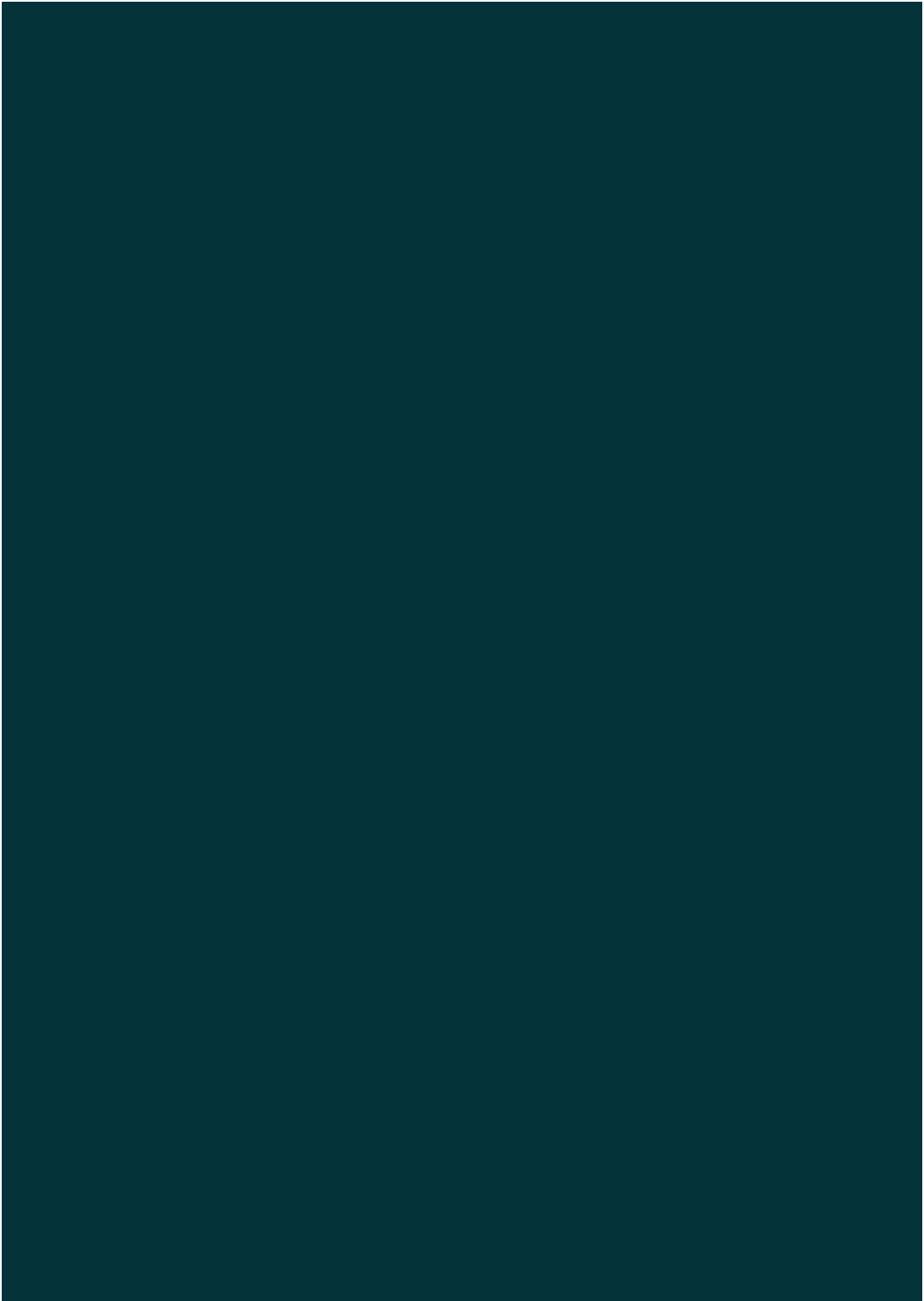
Team ReFrame

우리는 미디어 보도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책임 있는 보도는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모인 프로젝트 팀 ReFrame입니다.

기사 분석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보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하고자 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Members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25학번 백지아
jiapaik@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25학번 신비
shinb614@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25학번 안시연
2594043@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25학번 하정아
ha061500@ewha.ac.kr



2) 대중용 카드뉴스

본 카드뉴스는 이주민 보도 프레이밍 가이드라인의 핵심 원칙을 일반 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대중용 자료이다. 전문적 기준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가 실제 기사를 읽는 과정에서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질문하며 읽기’ 방식의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하였다. 카드뉴스는 이주민 보도 프레이밍의 개념과 문제의식을 소개하는 도입부를 시작으로, 용어 선택, 맥락과 관점, 발화 주체 재현, 인용과 통계, 시각 자료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각 주제별 점검 질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독자가 보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벗어나, 표현과 구조, 정보 제시 방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읽기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주민을 다룬 이 기사, 어떤 시선으로 쓰였을까?

언론의 이주민 보도 프레임

00국 출신, 국적

불법 체류자 A씨



이주민 보도 프레임링...?

그게 뭐지...



이주민 보도 프레임링이란,
뉴스가 이주민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지를 말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맥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주민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이주민이 문제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또 어떤 기사에서는 관리하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보도의 방식은 이주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주민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회가 특정 집단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뉴스를 읽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시선으로 구성된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이주민 보도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어볼까요?



이주민 보도를 읽을 때,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01
02
03
04
05

01 용어 선택 및 표현

1. 기사에서 이주민을 부르는 말은 무엇인가요? ----- (✓)

'불법체류자', '외국인', '이주민' 등 어떤 용어가 선택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이 표현은 사실을 설명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특정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하나요?

2. 국적이나 체류 정보가 꼭 필요한 맥락에서 나오고 있나요? (✓)

사건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국적이나 체류 자격이 먼저 강조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3. 이주민을 위협처럼 느끼게 하는 표현은 없나요? ----- (✓)

'유입', '확산', '침투' 같은 단어가 쓰였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이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 위협한 대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이주민 보도를 읽을 때,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01
02
03
04
05

02 맥락과 관점

1. 기사에서 개인의 행동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나요? ----- (✓)

사건을 개인의 선택이나 위법 행위로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행동이 발생하게 된 정책·제도·노동 환경, 그리고 이주민이 떠나올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함께 설명되고 있나요?

2. 해결책이 단속과 처벌로만 제시되고 있지는 않나요? ----- (✓)

문제의 해법이 단속, 관리, 처벌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 외의 정책적 대안이나 제도적 논의도 함께 제시되고 있나요?

이주민 보도를 읽을 때,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01
02
03
04
05**03 이주민의 목소리와 역할****1. 이 기사에서 이주민은 직접 말하고 있나요?** ----- (✓)

이주민이 사건의 설명 대상이나 주변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접적인 발화가 없다면, 그 이유와 맥락이 함께 설명되고 있나요?

2. 이주민이 '피해자'나 '가해자'로만 그려지고 있지는 않나요? (✓)

기사가 이주민을 동정의 대상이나 위험한 존재로만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노동자, 시민, 권리의 주체로서의 보통의 일상과 삶의 위치가 함께 드러나고 있나요?

이주민 보도를 읽을 때,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01
02
03
04
05**04 인용 및 통계****1. 기사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골고루 담고 있나요?** --- (✓)

정부나 수사기관의 입장만 반복되지는 않는지, NGO·전문가·이주민 당사자 등 서로 다른 위치의 목소리가 함께 등장하는지 살펴보세요.

2.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 (✓)

전문가의 이름이나 소속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지, 왜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3. 숫자와 통계가 충분한 설명과 함께 나오고 있나요? ----- (✓)

통계 속 숫자가 전체 중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다른 경우와 비교하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나요?

이주민 보도를 읽을 때,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01
02
03
04
05

05 시각 자료 활용

1. 기사에 쓰인 사진이나 영상은 어떤 감정을 유도하나요? -- (☑)

사진이나 영상이 기사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공포·위험·불안 같은 감정을 먼저 떠올리게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2. 시각 자료 속 인물은 존중받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나요? (☑)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개인이 특정될 위험은 없는지, 당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이미지인지 확인해보세요. 실루엣이나 뒷모습처럼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읽는 방식이 달라지면, 보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민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멈춰서 질문해보는 것,
그 자체가 보도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는 중요한 참여입니다.

해당 내용은 ReFrame팀의 이주민 보도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 학술 지원 ->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 -> ReFrame 탐사보고서
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3) 다큐멘터리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보도 프레이밍을 둘러싼 탐사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물로 제작하였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탐사 주제 설정부터 자료 조사, 미국 현지 취재 및 인터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아, 연구가 어떤 문제의식과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 인터뷰 경험을 중심으로, 탐사 과정에서 팀원들이 느낀 문제의식과 고민을 개인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하여 탐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다큐멘터리의 후반부에는 본 탐사를 통해 도출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탐사 결과가 연구 산출물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도 환경과 독자 인식 개선에 활용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상 :

https://youtu.be/naEP3Ha_BJs?si=9yQV1eTjGMj0A5Uu

III. 결론

1. 핵심 내용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이주민 보도의 프레이밍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탐사와 전문가·이주민 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언론 보도의 실제 작동 방식과 그 효과를 다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사 표본 분석을 통해 국적·출신이 범죄나 갈등의 핵심 요소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경향, 개별 사건이 구조적 맥락 없이 단순화되는 문제, 그리고 매체 성향에 따라 동일 사건이 상이한 프레임으로 재현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해외 탐사 과정에서는 국제기구와 학계 전문가, 미국 거주 이주민의 관점을 통해 이러한 보도 방식이 정책 담론, 사회 인식, 그리고 이주민 당사자의 삶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탐사 결과를 종합할 때,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윤리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도 행위의 기준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국적·출신 정보의 사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적이거나 체류 자격은 사건의 이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범죄나 갈등의 원인처럼 암시되거나 제목·리드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국내 기사 분석에서 확인된 낙인 강화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또한 이주민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개인의 일탈과 구조적 요인을 분리하지 않는 서술 방식이 요구된다. 범죄나 갈등 사례를 다룰 경우에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제도적 맥락, 노동 환경, 정책 구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이주민을 문제의 원인이 아닌 사회 구조 속 행위자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해외 국제기구 및 학계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바와 같이, 이주 문제를 인권이나 동정의 차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제·정책적 맥락과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시각 자료와 표현 방식 역시 핵심적인 가이드라인 요소로 도출되었다. 국내 보도에서는 범죄 현장 사진이나 집단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텍스트 내용과 결합되어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극적인 이미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신체 노출이나 집단화된 시각 표현을 지양하며, 사진과 텍스트 간 의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주민 보도가 인도주의적 접근과 경제적·사회적 맥락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해외 학계 연구와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개인 서사와 시각적 내러티브는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서사가 이주민의 노동 참여, 재정 기여, 사회적 역할 등 구조적 정보와 결합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언론은 이주민을 단순한 피해자나 예외적 존재로 재현하기보다, 사회와 경제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존재로 설명하는 균형 잡힌 보도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발성 사건 중심 보도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데이터 기반 보도로의 전환을 제언한다. 이주민 이슈를 특정 사건 발생 시에만 조명하는 방식은 왜곡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정책 효과나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통계 자료, 장기 추세 분석, 다큐멘터리 형식의 심층 보도를 통해 이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본 연구의 탐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 언론이 이주민을 둘러싼 공적 담론을 보다 구조적이고 책임감 있게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서론에서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국내 기사 표본 분석과 해외 현지 인터뷰를 결합한 탐사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 첫째, 한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프레이밍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는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재현하는 데 어떠한 한계를 드러내는가?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프레이밍의 핵심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 재현하는 데 어떠한 한계가 드러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국내 기사 분석 결과, 이주민은 사건·갈등 상황에서 국적이나 체류 자격, 범죄·위협과 같은 표지를 통해 설명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개별 사건이 구조적·제도적 맥락과 분리된 채 개인의 일탈 혹은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이주민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위치시키기보다 ‘문제화된 타자’로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주민 삶의 다층성과 사회적 기여, 제도적 조건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 둘째, 한국 언론의 이주민 프레이밍은 진보/보수 언론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슈별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이주민 프레이밍이 진보·보수 언론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동일한 이슈 하더라도 이슈별 맥락에 따라 프레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일 사건·유사 이슈를 보도하더라도 매체 성향에 따라 국적·출신 표기의 선택과 강조 강도, 문제 원인과 책임 귀속 방식, 인용되는 정보원과 시각 자료의 구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보도는 ‘치안·통제’ 혹은 ‘인권·보호’ 등 상이한 해석 틀로 조직되었다. 또한 난민, 불법 체류자, 외국인 범죄 등 이슈

유형에 따라 문제 정의의 초점이 달라지며, 특정 이슈에서는 단발성 사건 중심 보도와 자극적 재현이 강화되는 반면 다른 이슈에서는 제도·정책 논의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주민 보도가 단일한 프레임으로 고정되어 작동하기보다, 매체 성향과 이슈 맥락의 결합 속에서 특정한 의미 구성을 반복 생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셋째, 미국 언론 사례와 현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이주민 보도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는 한국형 이주민 보도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모색하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본 연구는 미국 언론 사례와 현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이주민 보도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를 한국형 이주민 보도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모색에 연결함으로써, 국내 논의가 놓치기 쉬운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 사례는 매체 성향과 플랫폼 환경에 따라 에코 챔버가 강화되고 이주민 재현이 특정 집단 이미지에 편중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서사와 시각적 내러티브가 대중의 태도 변화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구조적 맥락과 실증적 정보가 결합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현지 전문가와 이주민 인터뷰는 이주민 집단 내부의 신분·직업·지역에 따라 경험이 크게 달라지며, ‘이주민’ 범주를 단일하게 재현하는 보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형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혐오 표현을 배제하는 수준을 넘어, 국적 정보 사용의 엄격한 기준, 사건 보도의 맥락화, 시각 자료 사용의 책임성, 이주민의 다층적 삶을 반영하는 정보 설계 등 보다 구체적인 보도 원칙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프레임 분석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대안적 방향성을 보완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동시에 지닌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이주민 보도의 프레임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설계와 분석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프레임 분석은 본질적으로 해석적 연구 방법에 기반한 질적 분석으로, 기사 분류와 의미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내 기사 표본 분석 과정에서 문제 정의 프레임, 주체 프레임, 표현 프레임 등 주요 분석 범주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설정된 것으로, 프레임의 경계와 정의 자체가 해석자의 판단에 일정 부분 의존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사라 하더라도 프레임의 유형이나 강조점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분석 결과의 절대적 객관성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프레임 분석 연구의 구조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난민, 불법 체류자, 외국인 범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총 60건의 기사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 결과를 국내 언론 보도 전반의 일반적 경향으로 확장해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표본의 수와 범위가 제한된 만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특정 시기와 매체의 보도 경향을 탐색적으로 드러내는 데 의의를 지니며, 전체 언론 환경을 대표하는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는 텍스트와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수용자가 해당 보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나아가 태도나 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효과 분석까지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도 프레임의 구성 방식과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 프레임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한 분석 기준표를 적용해 반복적으로 기사를 검토함으로써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키워드별·매체별 비교를 통해 이주민 보도 프레임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 지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해외 탐사 및 비교 분석 과정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해외 선행연구와 외신 보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소수의 기사 표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또 다른 제약으로 남는다. 해당 분석은 매체별 표현 방식과 프레임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유의미했으나, 표본 수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를 전체 언론 보도의 일반적 특성으로 확장해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기사 표본과 다양한 국가·매체를 포함한 정량적·비교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현지 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민 보도와 커뮤니케이션 실천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으나, 각 기관의 실천이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내는지 체계적으로 추적하지는 못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은 주로

현 시점에서의 운영 방식과 문제의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보도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이주민의 삶이나 사회적 인식 변화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4.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몇 가지 방향에서의 확장이 필요하다. 첫째, 프레임 분석의 해석적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다수의 코드를 활용한 분석과 코더 간 신뢰도 검증을 도입하거나, 정성적 프레임 분석과 정량적 내용 분석을 결합한 혼합 연구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분석 대상 기사 수와 기간을 확대하여 특정 시점이나 사건에 따른 보도 경향이 아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프레임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가 텍스트 중심 분석에 머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주민 보도가 수용자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나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언론 분석에 그치지 않고 해외 언론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언론의 이주민 보도 프레임이 국제적 맥락에서 어떠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지니는지 분석한다면, 이주민 보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IV. 참고문헌

임준(2018), 「한국 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 경향 연구: MBC·KBS·SBS 저녁뉴스와 YTN 뉴스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57권 제1호.

양명철·한혜경(2014), 「한국 미디어의 이주민 보도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41집.

채영길(2010),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에 나타난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의 시계열적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14권 제2호.

이순향·남재일(2014), 「한국 신문 다문화 보도의 담론적 성격: 3개 신문의 다문화 보도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18권 제2호.

김찬중(2020), 「외국인 이주민 관련 긍정적 뉴스 보도가 부정적 태도 감소에 미치는 효과」, 『언론정보연구』 제57권 제2호.

Entman, Robert M.(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3 No. 4.

Alesina, Alberto, Armando Miano, and Stefanie Stantcheva(2023), “Immigration and Redistributio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90 No. 1.

Equal Justice Initiative(2021.12.16), “Report Documents Racial Bias in Coverage of Crime by Media”, Equal Justice Initiative.

경찰청(2021), 『범죄통계 2012-2021』, 경찰청.

대검찰청(2021), 『검찰연감』, 대검찰청.

안준현·김병권(2024.11.20), 「“밤길 안전하고 아파도 걱정 없어”… 한국 이민 50% 늘었다」, 『조선일보』.

이선욱(2025.2.5), 「‘부모의 불법체류가 제 죄가 되나요’ 고향 한국에서 좌절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 『BBC 코리아』.

이지현·박상혁(2025.5.21), 「다문화 사회 초입 한국… ‘이민자,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머니투데이』.

곽래건·김은중(2019.5.20), 「여성 경찰이 취객 제압 못했다고… ‘여경 다 없애라’는 사람들」, 『조선일보』.

고도예(2019.5.20), 「경찰폭행 현장 지켜본 음식점 주인 ‘여성 경찰, 그 정도면 잘했다」, 『동아일보』.

이후연(2019.5.20), 「“남자분 나와요, 빨리 빨리” 취객 제압 못한 여경 논란」, 『중앙일보』.

박준석(2023.4.20), 「영화 ‘범죄도시’가 현실로… 흥기 들고 가리봉 노래방 들쭈신 중국동포 조폭」, 『한국일보』.

정봉오(2023.4.20), 「영화 ‘범죄도시’ 현실판… 중국인 조직, 흥기협박 가리봉 노래방 장악」, 『동아일보』.

성운수(2023.4.20), 「현실판 ‘범죄도시’… 가리봉동 노래방 장악한 조선족 9명 검거」, 『국민일보』.

민정희(2025.5.19), 「연쇄 흥기 난동 4명 사상… 50대 중국인 체포」, 『KBS 뉴스』.

김보담(2025.5.19), 「단독/흥기 들고 ‘무차별’ 돌진… 40대 중국인 검거」, 『KBS 뉴스』.

KBS(2023.6.18), 「팩트체크K/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KBS 뉴스』.

KBS(2015.5.10), 「인종·국적 강조한 외국인 범죄 보도」, 『KBS 미디어 인사이드』.

V. 부록

1. 자체 제작 홍보물

① 팀 현수막



② 팀 팜플렛



01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is a school in Seoul, South Korea. It was founded by missionary Mary Scranton in 1886. Currently, Ewha Womans University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female educational institutes and one of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e use of "Womans" means that a woman, a person with a unique personality, gathers together and receives a university education together.

02 Global Frontier Program

Annual summer/winter programs to promote global female leaders. Programs allow teams of 4 students to actively plan and decide on exhibition topics & themes to visi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global companies, and universities abroad for two weeks.

Global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organized by the university's Student Affairs Office, Ministry of Education.



03 Topic

Communication Guidelines and Documentary Production for Korean Media's Immigrant Coverage, Based on an Investigation of U.S. News Reporting

04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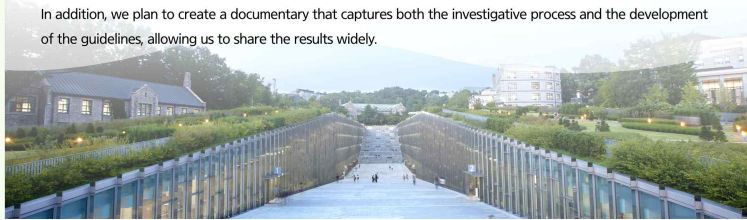
After reading a news article about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we noticed a striking gap in Korean society: despite the rapidly growing immigrant population, there is almost no public discussion about how the media frames immigrants. Because many Koreans form their perceptions of immigrants through news coverage, the impact of media framing is significant—yet interest and criticism remain minimal. This awareness led us to choose 'immigrant framing in news coverage' as the focus of our investigation.

05 Goal

2 Versions of Immigrant Reporting Guidelines & a documentary on the exploration process

Through this investigation, we aim to examine how U.S. media have addressed issues in immigrant reporting and identify the principles they follow. We will then critically analyze these practices to develop immigrant-coverage guidelines tailored to the Korean media landscape. To make them accessible not only to journalists but also to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the guidelines will be produced in two versions.

Our goal is not simple imitation but the reconstruction of standards that genuinely fit Korean society. In addition, we plan to create a documentary that captures both the investigative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the guidelines, allowing us to share the results widely.



③ 팀 명찰



Jia Paik

Member



Jeonga Ha

Leader



Be Shin

Member



Siyeon Ahn

Member



2. 인터뷰이와 촬영한 사진

1) Documented 기념 사진



2) Feet in 2 Worlds 기념 사진



3) JRS 기념 사진



3. 인터뷰 질문지

(순서대로)

- 1) Feet in 2 Worlds
- 2) Documented
- 3) JRS

Interview Questions for Feet in 2 Worlds

1. Compared to mainstream media, in what ways do immigrant-centered media outlets like Feet in 2 Worlds provide a distinctly different perspective?
2. Have you observed instances where a journalist's personal background or identity influenced the framing of immigrant-related stories? If so, could you share any specific examples you have encountered at Feet in 2 Worlds?
3. When training or mentoring journalists, what values or principles do you consider most essential?
4. If stories produced by Feet in 2 Worlds are selectively quoted, reframed, or distorted by other media outlets, does your organization have any internal guidelines or response strategies to address this?
5. Are there any immigrant reporting guidelines curre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that you have found particularly impactful or well-designed? In your experience, how frequently are such guidelines referenced in actual newsroom practices, and what limitations or areas for improvement do you see?
6. In the United States, what factors do you think most strongly shape public perceptions of immigrants? Within that process, how significant is the role of media coverage?
7. To what extent do you think US residents are aware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media's coverage of immigrants?
8. What do you think the future direction of immigration coverage in the US media will be?
9. We are planning to produce a documentary focused on immigrant reporting. From your perspective, what attitudes, ethical considerations, or precautions are especially important during the documentary production process?

Interview Questions for Documented

1. As an organization that runs a migrant-focused media platform, what moments feel most rewarding to you?

At the same time, what practical limitations or challenges do you encounter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platform?

2. When producing stories about migrants, are there specific principles or criteria that guide your choice of terminology?

What considerations does Documented prioritize most when selecting language?

3. When choosing visual materials such as photographs or videos for migrant-related coverage, are there ethical standards that are shared internally?

If so, could you explain how these standards were developed and share examples of how they have been applied in practice?

4. Beyond what is formally stated in Documented's *Code of Ethics and Editorial Independence*, are there any informal guidelines or rules that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day-to-day reporting?

If so, why do you consider them important?

5. In your view, what is most important for ethical principles or editorial guidelines to function effectively in everyday newsroom practices?

What systems or approaches does Documented use to ensure that these principles are actually reflected in daily reporting?

6. Based on Documented's experience, how do you perceive public awareness or attitudes toward the way migrants are covered in U.S. media?

How do you think these public perceptions influence the future direction of migrant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7. Our team is currently developing reporting guidelines for migrant coverage in Korean media. Drawing on Documented's experience, what core principle do you believe must be included in such guidelines, and why is it essential?

Interview Questions for JRS

1. While working at JRS, is there a particular story with migrants or refugees in the field that left a strong impression on you?
2. Compared to when you first met the migrants or refugees, what aspects of their lives do you feel have changed the most over time? And conversely, what challenges do you see as persistent or especially difficult to overcome?
3. When building relationships with migrants and refugees, what communication principles does JRS consider most important?
4. Based on your observations in the field, in what ways does a gap between the realities of migrants and refugees and how they are perceived or portrayed by the wider public become most apparent?
5. Have you ever witnessed or experienced cases where media coverage had a tangible impact on individual migrants or migrant communities?
6. In media coverage, what aspects of migrants' lives do you think tend to be underreported or insufficiently highlighted?
7. On the other hand, are there topics related to migrants or refugees that require especially careful handling, yet are often sensationalized or exaggerated in media narratives?
8. From JRS's perspective, what are the key elements of responsible reporting on migrants, and what types of language or framing should be avoided?

10. Korea is rapidly transitioning to an immigrant society, but experience and standards for reporting on immigrants have yet to be accumulated. In this context, if guidelines for reporting on immigrants were developed for the Korean media, what principles would you consider essential?

3) 다큐멘터리 기획안 및 촬영 계획표

Reframe 다큐 기획안 (초안)

- 촬영일자 : 2025.12 ~ 2026.02
- 출연 : 백지아, 신비, 안시연, 하정아
- 촬영 : 안시연, 하정아
- 기획 의도 : 언론의 이주민 프레임 문제에 대한 탐사 과정을 기록하고, 탐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기록하여 대중과 공유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중들의 문제의식을 촉구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함.

- 레퍼런스

- 1) 오프닝 : [YouTube Back by Popular Demand](#) ♥ [It's Me IRENE](#) | #I&S Concert Tour [BALANC...
- 2) 편집 스타일 : [강영현: 더 퍼스트 기어 "1화"](#), [반복되는 창사 속 이 시대 평범한 의인들의 이야기 | KBS 20251026 방송](#)
- 3) 인터뷰 화면 : [배우 박정민이 '불안'을 다스리는 법 | LIFEPLUS PEOPLE ep.12 - 배우 #박정민 #신화PD \[한화생명\]](#),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명,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되었을까? | KBS 다큐 인사이트 - 신년기획 2025 박퀘스트 2부 25.01.09 방송 - YouTube](#)
- 4) 그래픽 :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명,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되었을까? | KBS 다큐 인사이트 - 신년기획 2025 박퀘스트 2부 25.01.09 방송 - YouTube](#)

- 앵글



길 걸을 때 :

2) 개인(우리) 인터뷰 :







3) 정식 인터뷰 : 인터뷰이 개인캠[폰] 하나

4)

(전체 캠 하나,

#	화면	멘트	편집 스타일
#1 오프 닝			- 아이린 브이로그 오프닝 스타일 참고 - 우리 탐사 중 예뻐던 장면이나 웃겼던 장면 짜집기로 넣고 미감 끌어올리기 > 최대한 트렌디함 강조할 수 있도록!

			
<p>#2 야외 탐사 혹은 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조건 한명이 3명 뒤통수나 옆면 앉는 구도로 가기 (역지로 4명 다 나오게 ~) - 대신 나머지 3명도 셀프캠 들고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교차 편집 (아이돌 여행 자켓 많이 참고) - 야외 풍경이나 가는 길 많이 담기 - 중간중간 개인 인터뷰 화면 넣어서 느낀 점 삽입 (이를 위해 틸름이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좋을 것들 메모해두기)
<p>#3 실내 탐사 혹은 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이로그 느낌으로 무조건 바닥 / 테이블에 배치하고 건들이지 말기 (이때 최대한 빛 나오도록)
<p>#4 전문 가 인터 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으로 인터뷰는 한 명이 주도하는 것이 구도상 예쁠거라 생각. 여러명이 참여하더라도 메인 한 명과 인터뷰이 풀캠 하나, 인터뷰이 단독캠 하나 - 혹시 인터뷰이가 여러 명일 경우, 삼각대 세워두고 풀캠 하나, 테이블에 인터뷰이들 비추는 단독캠 하나나

<p>#5 개인(우리) 인터뷰</p>		<p>-</p>	<p>- 숙소에서 저녁마다 촬영. 그 날 탐사에서 필요한 질문들 메모해두었다가 4명 모두 인터뷰해서 중간중간 끼워넣기 정면-측면 사이로 캠 하나</p>
<p>#6 내용 전달</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인터뷰 마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1분 정도 간단하게 소개해주는 장면. (교훈을 알려주는 느낌) - 레퍼 참고해서 그래픽 넣어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구성 - 사실상 우리 다큐의 핵심이니 짜임새 있게 구성 (매일 밤에 다같이 흐름 고민해봐야 할듯)
<p>#7 자료 화면</p>		<p>-</p>	<p>- 직접 이주민 관련 자료를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되면 출처 남기고 영상 다른 곳에서 따오기</p>
<p>#8 클로징</p>		<p>-</p>	<p>- 우리가 탐사를 통해 느낀 점을 자막을 통해 짚 달고, 영화같이 마무리</p>

촬영 계획			
날짜	촬영 내용	개인 인터뷰	기타
1/14	<input type="checkbox"/> 뉴욕 입국하는 장면 <input type="checkbox"/> 공항 및 비행기 사진, 영상상 <input type="checkbox"/> 개인 - 정아 (탐사 주제, 선정 이유)	정아	
1/15	<input type="checkbox"/> 뉴욕 촬영 (자료화면) <input type="checkbox"/> 관광 촬영 <input type="checkbox"/> 개인 - 시연, 신비 (탐사계획 소개) <input type="checkbox"/> 회의 + 인터뷰 준비 과정 촬영	시연 신비	
1/16	<input type="checkbox"/> 뉴욕 촬영 <input type="checkbox"/> 관광 촬영 <input type="checkbox"/> 개인 - 정아, 지아 (기관 소개) 정아, 신비 (국내 탐사 과정)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준비 과정 촬영	정아 지아 신비	
1/17	<input type="checkbox"/> 뉴욕 촬영 <input type="checkbox"/> 관광 촬영 <input type="checkbox"/> 개인 - 신비, 시연 (사전 회의 정리)	신비 시연	
1/18	<input type="checkbox"/> OECD 기관 종인인터뷰 <input type="checkbox"/> 숙소 - 인터뷰 내용 정리 <input type="checkbox"/> 개인 - 신비, 시연 (인터뷰 소감)	신비 시연	
1/19	<input type="checkbox"/> Feet in 2 Worlds 기관 인터뷰 + 방문하는 과정 <input type="checkbox"/> 숙소 - 인터뷰 내용 정리 <input type="checkbox"/> 개인 - 정아, 지아 (인터뷰 소감)	정아 지아	
1/20	<input type="checkbox"/> Documented 기관 인터뷰 + 방문하는 과정 <input type="checkbox"/> 지역 이동 (기차) <input type="checkbox"/> 숙소 - 인터뷰 내용 정리 <input type="checkbox"/> 개인 - 정아, 신비 (인터뷰 소감)	정아 신비	
1/21	<input type="checkbox"/> World Bank 기관 인터뷰 + 방문하는 과정 <input type="checkbox"/> 숙소 - 인터뷰 내용 정리 <input type="checkbox"/> 개인 - 지아, 시연 (인터뷰 소감)	지아 시연	
1/22	<input type="checkbox"/> 워싱턴 DC 촬영 <input type="checkbox"/> 개인 - 지아 (중간 점검)	지아	중간에 사용할 풍경이나 길거리 영상 촬영
1/23	<input type="checkbox"/> JRS 기관 인터뷰 + 방문하는 과정 <input type="checkbox"/> 전원 인터뷰 - 탐사 후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출국하는 장면	다같이	

2. 국내 선행연구 기사 표본 모음

1) 한겨레

제목	발행일	유형	키워드
트럼프의 원조 중단, 날벼락 맞은 타이 '멜라 난민촌'	2025/11/27	기획	난민
"난민o소수자 배제하면서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나"	2025/01/22	스트레이트	난민
트럼프 '난민 이중잣대'...전세기 띄워 남아공 백인 49명 모셔온다	2025/05/12	스트레이트	난민
대법, '가정폭력 피해 난민 신청' 튀니지 여성에 심사받을 기회 줬다	2025/07/30	스트레이트	난민
흥기로 행인o경찰 위협한 러시아 난민, 실탄 발사 끝에 체포	2025/10/24	스트레이트	난민
뚜안 죽음 부른 '토끼몰이식 단속'...대책위 "단속 중단o진상 조사 필요"	2025/12/23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규정에 없는데...외국인 유학생 '체류 위기' 내모는 법무부	2025/08/26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전염병 확산 가능성" "범죄시 대응 어려워"...국힘, 도 넘는 '혐증' 자극	2025/09/29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실외기에 숨어 불법체류 단속 피하던 이주노동자 추락사	2025/10/29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앞에서 외국인 이름을 외친다 [세상읽기]	2025/03/02	기획	불법 체류자
가사'활동안'과 가사'노동자' [한겨레 프리즘]	2025/03/25	기획	외국인 범죄
"폭행 피의자 중국인" 경찰 잘못된 발표에...대만 유튜버에 쏟아진 왜곡된 비난	2025/09/17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25살 두안의 생이 멈춘 날...왜 떨면서 숨어 있어야 했나	2025/11/21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이주노동자 폭행, 임금 차별... 고용허가제 사업장 93%가 노 동법 위반	2025/11/19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공장 들이닥친 '인권유린'..."미 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뭐가 다른가"	2025/11/03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2) 경향신문

제목	발행일	유형	키워드
난민은 "쓰레기"? ...통계는 No 라고 말한다	2025/12/12	스트레이트	난민
'탈레반 납치' 우려에도 3년 소 송 끝 난민 인정...여전히 높은 벽	2025/06/19	스트레이트	난민
난민심사도 못받고 넉 달째 공 항 갇힌 10살 아이랑·"병원비 없어 치료 미뤄"	2025/10/21	스트레이트	난민
난민이 경제에 부정적? 통계는 반대라고 말한다...구글 창업 자도 난민 출신	2025/12/11	스트레이트	난민
5개월, 난민심사 대신 햄버거 만 준 한국령·"떠날 수도 없었 다, 돌아가면 죽기에"	2025/09/25	기획	난민
'법 테두리 밖' 내몰리는 이주 노동자	2025/10/24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미등록 이주민? '불법체류자' 라고 하면 안 되나요? [설명할 경향]	2025/11/15	기획	불법 체류자
단속 피하다 발목 잃은 아미노 씨렁·이주노동자 비자는 늘리 면서 마구잡이 단속은 강화	2025/04/28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퇴직금 안 주려고 불법체류자 신고"...임금체불 피해 키우는 '	2025/12/11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강제구금법' 바꾼다			
"중국인이라고 뭐가 다른가?" 령·대림동 주민들이 '혐종 집회' '에 묻다	2025/09/23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20명 중 1명 '이주배경' 이웃 인데령·아직도 혐오하고 차별 하고	2025/12/10	기획	외국인 범죄
'밥솥'에 마약이? 령·경찰, 마약 류 유통·투약 외국인 일당 41 명 무더기 검거	2025/02/27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합성 마약 밀반입, 대마 유통 등 외국인 마약사범 106명 적 발	2025/11/18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제품 불량 냈다고 폭행"...외국 인 노동자 사업장 846건 법 위반 적발	2025/11/19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이별 요구에 폭행하고 방화 시 도령·50대 미등록 외국인 검거	2025/08/04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3) 조선일보

제목	발행일	유형	키워드
트럼프 "돈 줄게, 불법 이민자 받아라"	2025/08/12	스트레이트	난민
독일서 아프간 난민 흥기 테 러...유아 등 2명 사망	2025/01/23	스트레이트	난민
길에서 처음 만난 남성 쫓아가 덥씩 입맞춤...성폭행 시도한 인도 난민	2025/10/07	스트레이트	난민
바이든 때 폐지된 불법 이민자 '가족 구금' 부활	2025/03/18	기획	난민
전 남편 폭행 피해 한국 온 튀 니지 여성... 대법 "난민 심사 대상"	2025/07/30	스트레이트	난민
불법 체류 태국인 5명, 강남 클럽서 마약하다 검거	2025/01/08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기자의 시각] 산으로 가는 외	2025/03/06	기획	불법

국민 도우미			체류자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위조 신분증' 내민 불법체류 중 국민	2025/03/04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법무부 "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 강제 퇴거"	2025/05/30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화장품 병 열어보니 '마약'...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 검거	2025/09/29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외국인 범죄와의 전쟁, 올해만 2만9000명 검거	2025/11/27	기획	외국인 범죄
"벌금 290만원으로 부탁드린다"...출국명령 피하기 위해 형량 다투는 외국인들	2025/04/23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자살 드문 네팔 청년도 한국 와선 극단 선택, 부끄럽다"	2025/10/04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부산 외국인 마약사범, 작년 102% 폭증	2025/03/17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3시간 주먹질'... 불법 체류 중 국민, 제주서 前 여친 살해	2025/02/24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4) 중앙일보

제목	발행일	유형	키워드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2025/02/03	스트레이트	난민
"난민 되길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한국서 '집' 찾는 두 사람	2025/06/21	스트레이트	난민
20대男 속옷서 DNA 나왔다... 포천 뒤집은 '인도 난민' 결국	2025/10/07	스트레이트	난민
'난민 비자' 러시아인 실탄 싸제압...칼 들고 경찰까지 위협했다	2025/10/24	스트레이트	난민
"반팔 티셔츠 하나로 8개월 버텼다"...'공항난민' 된 이들, 원일 [출처:중앙일보]	2025/02/20	기획	난민

고시원 벽간 소음에 분노...이 웃 살해 시도한 불법 체류 중 국인 체포	2025/11/13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두 시간 넘게 폭행"...전 연인 살해한 불법 체류 중국인 구속 기소	2025/02/24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서해바다 350km 혼자 건넌 중 국인, 불법체류 1년만에 붙잡 혀	2025/10/31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원옥금의 한국에 산다는 것] 이주노동자에게 이직을 허하라	2025/01/13	기획	불법 체류자
서울 한복판서 칼 휘두른 불법 체류 중국인...잡히자 "장난이었 다"	2025/08/20	스트레이트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 희한한 범죄...납골당 유골함 훔친뒤 "28억 내놔"	2025/02/26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지게차 학대' 50대, 4년 전엔 화물에 이주노동자 매단 적도 있다	2025/08/18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韓에 '범죄 소굴' 만들었다...베 트남인 드나들던 '수상한 클럽' 정체	2025/02/05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
캄보디아 교민 "한국인 포함 2030, 심장마비로 화장터 많 이 온다" [르포]	2025/10/21	기획	외국인 범죄
죽음의 땅 된 한국...네팔 청년 극단선택, 악몽의 돼지농장	2025/04/30	스트레이트	외국인 범죄